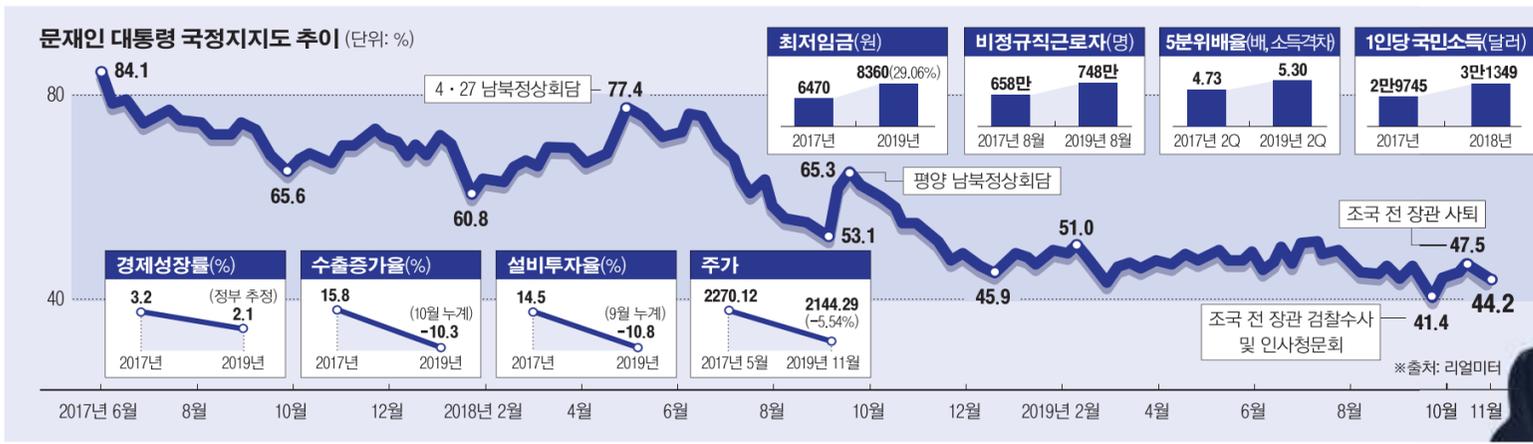


제2259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이운태 사장 "메가트렌드 읽어 미래 준비" 9 유럽무대 123호 골... '치붐' 넘은 손흥민 21

코스피(7일) **2144.29** (+0.14P)
코스닥 **666.15** (-3.53P)
환율(달러당 원화) **1159.3** (+2.4원)
금리(국고채 3년물) **1.541%** (+0.011P)



온통 파랗게 질린 지표... 출구 못찾는 '소주성 경제'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에는 반등이 없었다. 경기는 반도체 호황에 고무됐던 2017년 3분기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머물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7년 3.2%에서 지난해 2.7%로 둔화했다. 올해엔 정부 목표치가 2.4~2.5%에서 2.0~2.1%로 사실상 하향 조정됐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부문별론 투자 감소세가 가파르다. 건설

주요 경제지표 하락세 지속

올 성장률 2% 달성도 가물거울 경기악화 전망 갈수록 커져 '단기 성과 집착이 오히려 패착'

조업 위기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황에 따른 수출액 감소가 투자·생산 부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D램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여론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017년 11월 34%, 지난해 5월 35%에서 올해 7월 12%로 줄었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 5월 22%에서 올해 8월 62%로 늘었다. 임기 중 지난해 5월 1주 83%까지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도 올해 10월 3주 3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

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힘을 못 썼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기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에 쏠려 있었고, 정부가 혁신성장을 추진한다곤 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한 면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랬듯,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정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다 보니 오히려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국내 첫선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자사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모델 'SF90 스트라달레'를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는 최대 출력 780마력의 90° V8 터보 엔진과 220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해 최대 출력 1000마력을 선보이는 일반 양산형 모델로 페라리의 독보적인 능력을 탑재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독자 OS' 개발

AR 내비·간편결제 기능 '제네시스 SUV'에 첫 적용

현대자동차그룹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과 같은 독자적 운영체제(OS)를 개발했다. <본지 8월 8일자 2면 '현대차, 국내 첫 번째' 기사 참조> ▶관련기사 9면

7일 현대차그룹은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로 길안내를 돕는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간편결제 기능을 갖춘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출시되는 제네시스 차종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OS가 탑재되는 최초 모델은 제네시스 SUV인 GV80이다.

이번에 개발한 고급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6세대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현대차그룹 독자 차량용 OS 'ccOS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현대차그룹은 ccOS를 바탕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차량 내 간편결제 시스템 △필기인식 등 탑승자와 자동차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기술들을 대거 도입했다. 추고용현대차그룹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상무)은 "새롭게 개발된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커넥티드카 시대에 운전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술들을 대폭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여정이 보다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기술을 체험하는 즐거움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시아나 인수 '애경 vs HDC현산' 2파전

본입찰 마감... KCGI, 전략적 투자자 없이 참여한 듯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을 달궜던 대어급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사실상 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2파전'으로 압축됐다. ▶관련기사 4면

애경그룹의 항공업 10년 노하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풍부한 자금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2곳과, KCGI(일명 강성부펀드)까지 총 3군데가 참여했다.

가치 약 3700억원, 8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주,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1조5000억 원가량의 인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도 '통매각'될 경우, 매각가는 2조 원까지 갈 수 있다.

본입찰 참여 기업은 구주·신주 매각가격과 향후 투자·경영계획 등을 써서 제출해야 한다. 애경 컨소시엄과 HDC현산 컨소시엄이 써 낸 가격은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은 본입찰 서류를 받은 뒤 1~2주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우선인수협상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허유미 기자 jscs508@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폐지

유은혜 "일반고로 일괄 전환" 현 초등학교 4학년생이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다. 일괄 전환 적용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 3월부터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생 선발과 배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김소희 기자 ksh@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의 소신 “전기료,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산업부 반대에도 ‘요금 인상’ 거듭 시사

최근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 발언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던 김종갑(사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후회적으로 의견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특례할인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연장할지 중단할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6일 광주에서 열린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전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전기요금은 내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하고 지금 안 내면 언젠가 내야 하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4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주들과 콘퍼런스콜을 하는데 전기요

작년 특례할인제도로 1.1兆 부담 전기차 충전·전통시장 혜택 등 혼란 우려 연장·중단 정부와 논의

금 인상에 대한 상황도 보고할 것”이라며 “인상일 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고 발언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해명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 제도”라며 “한전 이사회가 연장이나 아니냐를 결정하지만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정부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 혜택을 특례로 정해 한전이 이를 부담해 온 것들을 말한다. 주택용 절전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제도로 인해 1조1434억 원을 부담했다.

우선 당장 12월에 일몰 되는 게 전기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은 “일단 11월 이사회에서 공개된 대로 공개 안을 갖고 토론할 것”이라며 “투자자나 전기 소비자께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실적과 관련해선 3분기 흑자를 기대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실적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연료 가격, 그다음은 환율”이라며 “2016년보다 연료 가격은 2017년도에 올랐고 지난해 68달러 내외, 지금도 그 선과 비슷하다. 연료 가격이 금방 낮아질 거란 전망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적 전망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세워놓고 못 돌리는 한빛 1, 3, 4호기 다 고쳐서 돌아가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실적에 좀 유리하고 68달러 때보다 연료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선 “한전공대가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1조 원대로 가져가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약속하는 대학교가 융합 연구가 필요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유통 거장들의 귀환... ‘홀로서기’ 성공할까

국내 주류업계와 유통업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두 거장이 올해 나란히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드링크인터내셔널의 김일주 회장과 비즈니스인사이드의 양창훈 회장이 주인공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3월 김일주 회장이 드링크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임페리얼’ 위스키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확보한 데 이어 양창훈 비즈니스인사이드 회장이 지난달 미니스코리아를 인수하며 유통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김 회장은 두산씨그램, 진로발렌타인스, 페르노리카코리아, 골든블루, 윌리엄그랜트앤선스코리아 등 위스키 기업을 두루 거쳤다. 그는 말은 브랜드를 업계 1위로 키워내며 위스키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도 불렸던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진로발렌타인스 마케팅 임원 시절이던 2001년 국내 최초로 임페리

김일주, 임페리얼 독점권 확보
침체된 위스키 시장서 1위 노려

얼에 위조방지장치인 ‘키퍼캡’을 도입했다. 가짜 위스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소비자 신뢰로 이어지면서 임페리얼은 시장 1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저도주 위스키 골든블루로 자리를 옮겨 현재 위스키 시장 1위인 골든블루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과 HDC아이파크몰을 거쳐 4월 경영컨설팅 기업인 비즈니스인사이드로 자리를 옮긴 양창훈 회장은 ‘몰링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김일주 회장

양창훈 회장

400억 원대의 적자를 내던 HDC아이파크몰에 ‘몰링’ 개념을 실체화한 인물이 양 회장이다. 그는 HDC아이파크몰 대표에 오른 지 3년 만에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바꿔놓았다. ‘즐길거리’와 ‘살거리’를믹스앤매치하는 매장의 재구성을 통해 당시

양창훈, 미니스코리아 인수
국내 우수제품 세계 진출 박차

‘몰링’ 개념이 생소하던 국내에서 몰링을 현실화했다. 2015년 치열했던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대전에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며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경영인에서 오너로, 유통업에서 경영컨설팅기업으로 각각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두 사람은 복귀 신호탄을 화려하게 쏘았다.

김 회장은 임페리얼 판매권을 인수하며 “2년 내 위스키 브랜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취임 일성으로 밝혔

다. 국내 위스키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과거 그의 행보를 되짚어보면 허황된 목표만은 아니다.

양 회장은 ‘미니스코리아’를 인수합병하며 “한국의 우수 제품을 세계 미니소매장에 입점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니소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4000여 매장을 운영 중이다. 양 회장의 인수 후 공약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미니소 글로벌은 최근 한국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제1회 미니소 국제 상품 디자인 어워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디자이너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 전 세계 미니스코리아 매장에 제품화하는 첫걸음의 단추를 쥔 것이다.

주류와 유통채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업계 대부 두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애경 '항공 노하우' 나...HDC '풍부한 자본력' 이나

2파전으로 좁혀진 '아시아항공 매각'

7일 진행된 아시아항공 매각 본입찰에 최종 참여해 강력한 인수후보로 꼽히고 있는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두 곳은 각각 '항공업 경영 노하우'와 '풍부한 자금력'이라는 메리트 가지고 있다.

애경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을 통해 경험한 10년 이상의 항공업 경영 노하우가 가장 큰 강점이다.

2005년 설립된 제주항공은 2006년 첫 취항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LCC 1위이자 국내 3위 항공사로 거듭났다. 2015년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으며, 2018년 LCC 최초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했다.

특히 애경그룹은 항공사 간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항공은 대한항공에 이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이며 국제선 노선 70여 개를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다. 애경이 아시아항공을 인수할 경우 보유 비행기는 160대, 점유율은 국제선 45%, 국내선 48%에 이를 전망이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주항공 10년 경영한 애경 인수 댄 국제선 점유율 45%

HDC현산, 당장 1조 자체 조달 면세점·호텔사업 시너지 노려

유력 대기업 '깜짝 참여' 없어 새 주인 부채 9조 떠안아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실탄이나 소 부족하다는 우려를 일찌감치 불식하며 인수 자금도 확보했다. 앞서 애경그룹은 지난달 21일 1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적투자자(FI)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을 잡으며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풍부한 자금력이 최대 강점이다. 당장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동자산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

HDC그룹은 지난해 5월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분할 효과로 대기업집단 순위가 기존 46위에서 올해 초 38위로 8계단 상승했다. 앞서 2017년 부동산 토털 서비스 기업인 부동산 114를 인수하고,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올해 원주 오크

밸리 경영권을 인수해 HDC리조트를 새롭게 출범한 것도 자산 확충에 한몫했다.

특히 레저 사업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경영 기조를 볼 때 기존 면세점과 호텔사업은 아시아항공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만,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이다.

결과적으로 절대 가격요소 외에 두 컨소시엄의 장단점을 금호산업에서 어떻게 가산점을 뒤 평가하느냐가 관건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9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두 곳 모두에 상당한 부담이다. 아시아항공의 2분기 기준 부채는 총 9조5989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660%다.

양호한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자본력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본입찰 서류를 받은 금호산업은 1~2주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우선인수협상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향후 최종입찰안에서 제한요건 충족 여부 및 사전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국토교통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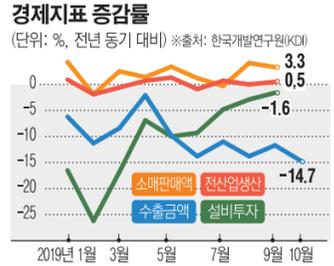
KDI "8개월째 경기부진" 진단

경제동향 11월호 "건설투자·수출액 크게 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매판매액의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개선되면서 소비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이라며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건설투자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수출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단 "제조업가동률이 소폭 상승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회복하는 모습은 경기 수축이 심화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부문별 지표들을 보면, 전산업생산 증가율(이하 전년 동기 대비)은 8월 0.0%에서 9월 0.5%로 소폭 확대됐다.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8월 2.4%에서 9월 1.0%로 축소됐으나, 광공업생산이 3.3% 감소에서 0.4% 증가로 전환됐다. 소비(소매판매) 증가율은 8월 4.1%에서 9월 3.3%로 다소 낮아졌으나, 분기 기준으로 2분기 2.0%에서 3분기 2.4%로 높아졌다.



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8월 -2.9%에서 9월 -1.6%로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건설기성(시공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7%대 감소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9월 -11.7%에서 10월 -14.7%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무역수지도 전년 동월(63억8000만 달러)보다 축소된 53만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9월 교역조건은 -4.0%로 전월(-4.6%)보다 악화 폭이 축소됐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과 보합을 보이며 9월 마이너스 물가(-0.4%)에서 벗어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 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에서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트라

자격미달 자녀·조카 채용한 지역 농수협

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 조사...부정채용 1040건 적발

#지역조합인 A농협은 2017년 영업지원직 직원을 뽑으면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명을 채용했다. 확인 결과 2명 모두 지원 자격에 미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직원 자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수협은 2016년 지점을 개설하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 이후 안내데스크 운영을 이유로 1명의 계약직을 추가로 고용했다. 조사 결과 사업계획상 채용 계획도 없었고, 채용된 계약직 직원은 임원과 직원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최근 5년간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

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정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채용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먼저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자체 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과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 이행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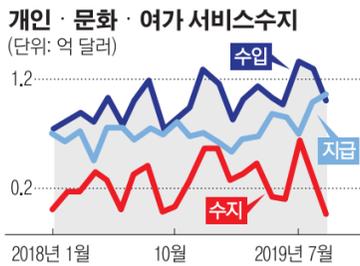
'겨울왕국2'의 힘...문화·여가 지급액 1억 달러 돌파

해외문화 콘텐츠 소비 증가에 개봉 영화 배급사 지급액 늘어 관련 수지도 45개월 만에 적자

올겨울 개봉을 앞둔 '겨울왕국2'의 힘이 대단하다. 국내 개봉을 위한 배급사의 지급액이 영향을 미치며 국제수지상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지급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최근 넷플릭스 등 이용자들이 늘며 관련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입액에서 지급액을 뺀 수지도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 또한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개인·문화·여가서비스로 해외에 지불한 지급액은 1억380만 달러(1243억 원)에 달했다. 이



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2012년 7월 기록한 1억230만 달러였다.

부문별로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에 631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3년 1월 6710만 달러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타 개인·문화·여가서비스로도 407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또한 지난해 12월 413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반면 해외로부터 받은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액은 1억150만 달러(1215억 5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급을 뺀 수지는 230만 달러(27억 50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 70만 달러 적자 이래 처음이며, 2015년 12월 930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해외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며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지급액이 기조적으로 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올겨울 개봉할 어린이 영화를 수입하기 위해 배급사에서 크게 나간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월트디즈니의 '겨울왕국2'가 개봉될 예정이다. 1편의 인기에 힘입어 흥행이 예고돼 있다. 올 상반기에도 4월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마블시리즈 영화로 관련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hn21c@

중 미세먼지 대책 없이 노후 경유차만 '땀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정부는 계절 관리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해당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차의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로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시군까지 확대된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취득세 표준세율을 2배로 높이는 내

용의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비중은 산업계가 41%로 가장 높고, 수송이 29%, 생활 18%, 발전 12% 순이다. 수송은 모든 운송 수단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이 가운데 경유차가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 대책을 마련한 노후 경유차는 이 가운데 60%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종합해보면 전체 미세먼지에서 노후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국내 발생원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지자체, 연내 예산 다 써라”...당정 ‘2% 성장’ 올인

“재정 집행률 중앙 97%·지방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이월 줄이고 부처도 적극 협조...신속한 집행 성장 마중물”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을 2%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거 돈을 풀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재정집행률 목표를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로 잡고 (목표 달성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재정집행률은 중앙재정 85%, 지방재정 70%, 지방교육재정 77.3%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 3분기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된 세출예산과 추가경

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예산 이월 규모

가 큰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15조 원 정도의 재정 불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30%만 줄여도 3조~4조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밑돈 것이다. 전문가들은 0.5~0.6%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3분기 성장이 낮았던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P)에서 3분기 0.2%P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최소 0.97%는 나와야 연간 2% 성장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재정의 성장 기여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을 2%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타다 대책’ 손발 안 맞는 민주당

이규희 “타다는 불법택시” 이인영 “조울 안 된 사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규희 의원이 7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택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울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의 ‘불법택시 영업’ 시각, 또 하나는 ‘신산업’ 시각”이라며 “타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

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이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진한 것이다.

그는 또 “우버택시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우버는 100만 원 수입 안팎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타다는 일당 1만~1만1000원의 비정규직 수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의 카풀 중계가 신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택시 기사의 분신이라는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며 “택시산업 처우 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수단 혁신은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공개발언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하며 “조울이 전혀 안 됐다. 정책조정회의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접견식에서 이슬람 아슬라노프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대통합’ 시동...도로 한나라당?

한국당 초·재선 “보수통합 지지” 유승민, 보수대통합 논의 시사 ‘탄핵 인정’ 놓고 힘겨루기 예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보수대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이르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 대표가 ‘원칙 있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전·현직 지도부와 3선 이상급 중진 의원들의 용단을 촉구하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들부터 기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대통합과 인적혁신의 길’ 성명서를 44명 전원 명의로 발표, “초선의원들은 선배 의원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로 제21대 총선이 161일 남았다.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의 바람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전진’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임을 하고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가 좌파의 집권과 총선에서 좌파가 계속 승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우파 목소리”라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유승민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신당기획단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우리공화당이 탄핵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이 내려졌고 또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간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건 제가 말한 통합 원칙에 당연히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한국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유승민 대표의 ‘탄핵 인정’ 발언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누구나 누리는 물서비스

500여가지 수질검사

물관리 일원화로 대한민국 물 안전·물 복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실현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韓 냄비근성’ 비웃다 눈물 속 빼는 日기업

韓 의존도 높은 기업, 불매운동 타격 對한국 매출, 전년 대비 33% 급감 대상트·유니클로·아사히 어닝쇼크

한국 의존도 높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한·일 갈등으로 한국 내 일제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매출 비율이 10% 이상인 일본 14개 기업의 3분기(7~9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감소 폭은 똑같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보다 컸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장기기업인 네덜란드 ASML처럼 한국 시장 비중이 큰 외국 기업 80개사의 순이익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체는 대상트였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는 대상트는 이날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대상트는 내년 3월 끝나는 2019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440억 엔(약 1조5000억 원)에서 1308억 엔으로 9.2% 낮추고, 순이익은 53억 엔에서 7억 엔으로 무려 86.8%나 낮춰 잡았다. 기존 전망에서는 매출과 순이익을 각각 1.1%, 34.4% 늘여날 것으로 잡았었다.

대상트는 ‘대상트’ 브랜드 외에 한국에서 ‘먼싱’ 등 5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고세키 슈이치 대상트 사장은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3분기 한국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고 밝혔다. 추위지는 11월과 12월은 고가의 다운 코트 등이 그나마 팔릴 것으로 보이지만, “불매의 영향

한국 관련 기업들의 순이익 증감을 추이

(단위: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
※2017년과 2018년 4분기는 적자·흑자 전환기여서 앞뒤 분기를 점선으로 표시



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대상트는 한국 자회사 실적 윤곽이 드러나는 12월 말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다.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한국 사업 매출액은 작년에 약 1400억 엔에 달했지만, 올해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맥주 업체 아사히그룹도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사히는 지난 5일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엔고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 영향이 컸다. 해외 사업 중 한국을 포함한 부문의 순이익 예상치를 전년보다 75% 감소한 5억 엔으로 10억 엔 낮췄다. 작년까지만 해도 8년 연속 한국 수입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 관광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고, 9월은 58%나 줄었다.

한국으로의 수입 규제 강화 대상인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쇼와덴코는 6일 기자회견에서 “연내에는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변효선 기자 hsbun@

中, 기업 줄도산에 ‘파산보호 시스템’ 도입

美 ‘챕터11’ 벤치마킹... 파산 막기보다 경영회생 택해

중국이 기업파산 흥수에 경제까지 휘청거리자 미국식 파산보호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불안을 우려해 기업 파산을 꺼려왔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파산보호는 미국 연방 파산법의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기업들의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중국은 10년간의 급속한 경기확장과 막대한 차입 여파로 현재 경기둔화에 빠졌다. 지난해 기업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약 1만9000건에 달해 2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기업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자금을 회수하고자 파산 제도를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미 중국은 2007년 공식적으로 새

파산법을 제정해 미국의 챕터11과 비슷한 파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사회 불안과 대규모 해고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인정하고 나서 경영 회생을 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파산법원을 급속히 확대했다.

지난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기업 중에는 철강업체인 보하이스틸그룹도 있다. 이 업체는 무려 2000억 위안(약 33조 원)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 과거였다면 국영은행과 다른 채권단이 손해를 전부 감수했을 터였다. 그러나 현재 보하이 자산 중 일부는 다른 철강업체가 인수할 예정이며 채권단은 이를 통해 부채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업체 알바레스&

중국 파산 접수와 원로 건수 추이



마살의 론 톰슨 전무이사는 “중국당국이 경기둔화로 약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에 당국은 이 문제를 다룰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도 파산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두안화 자문위원회 부주임은 한 관영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 인상으로 더 많은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원은 비가 오기 전에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워니 워니 해도 ‘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면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 도 중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력 관련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면로(LA)/AP연합뉴스

〈신임 ECB 총재〉 라가르드 “매·비둘기 아닌 올빼미” ‘양적완화’ 반대한 독일에 견제구

“통화정책 현명하게 대처할 것”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최강국인 독일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1일 취임한 라가르드 총재는 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유로존의 19개 회원국 중 하나에 불과하며, ECB는 회원국들 모두의 정책 결정 동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중요한 국가이지만 유로존 19개 회원국 중 하나”라며 “큰 경제국이지만 다른 모든 국가도 (한 배에) 탑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가르드 총재는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을 ‘비둘기파’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정책에 따라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누는데, 나는 ‘올빼미’라며 “올빼미가 되기를 원한다. 올빼미는 매우 현명한 동물”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라가르드가 취임하기 전부터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다.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한 ECB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를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마리오 드라기가 지난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미 마이너스인 예금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주도하자 독일 측 ECB 집행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라가르드는 ECB 양적 완화에 반기를 드는 독일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또 라가르드는 재정적으로 견실한 국가들이 부양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독일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그는 ECB 총재 취임 직전인 지난달 말 프랑스 라디오 RTL과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재정적으로 탄탄한 국가들이 인프라와 교육,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며 재정적 부양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였던 라가르드와 밀접하게 일했던 볼프강 쇼이블레 전 독일 재무장관(현 독일 연방 하원의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가르드는 국제 경험이 풍부하며 통화정책을 강력하고도 매우 분별 있게 펼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칭찬하면서도 “ECB의 임무는 제한돼 있으며 라가르드가 이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잔인한 10월... CEO 172명 잘렸다

전문성 부족·사생활 문란 등 2002년 집계 이후 최고 ‘최고’

구조 조정의 칼바람에서 기업을 이기는 최고경영자(CEO)도 예외는 아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채취업 컨설팅업체 쉐릴러, 그레이앤크리스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32명의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는 전년 동기 1176명보다 13% 증가한 것이며, 2002년 집계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257명보다 더 많았다.

특히 10월이 잔인한 달이었다. 총 172명이 잘렸는데, 이는 전달(151명)보다 14%, 전년 동기(149명)보다 15%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2년 이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앤드류 쉐릴러 쉐릴러, 그레이앤크리스마스 부사장은 “10월은 유명 CEO들 상당수가 물러난 달로 기록됐다”면서 “경영 관련 전문성 부족, 사생활 문제 등이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10월에는



‘워워크’ 애덤 뉴런

‘언더아머’ 케빈 플랭크

‘나이키’ 마크 파커

전자담배 업체 줄의 케빈 번스, 사무실 공유 서비스업체 워워크의 애덤 뉴런, 언더아머의 케빈 플랭크, 나이키의 마크 파커 등 주요 기업의 CEO가 물러나거나 경질됐다. 11월에 들어서도 스티브 이스터브룩 맥도날드 CEO가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CEO 교체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비영리기관으로 281명이 잘렸다. 다음으로 기술회사(181명), 금융회사

(104명), 제약회사(55명) 순이었다. 쉐릴러 부사장은 CEO들이 대거 물갈이된 것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10년 전 경기 확대가 시작될 당시 기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내년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MAKE_금융거래를 더 간편하게 만들고
MORE_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MOST_가장 앞서나가는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

Liiv M,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 Liiv M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9-1793-1호(2019.10.25) | 광고물 유효기한 2020.04.30까지

***b KB 국민은행**

신한카드 '디지털 퍼스트'로 위기 극복 '승부수'

국내 첫 아마존과 3년 장기 협력 해외 직구 고객 대상 마케팅 추진

CB·페이스페이·글로벌 진출 등 결제시장 新성장 모델 제시

신한카드가 수년간 계속된 수수료 인하 등 경영 약재 돌파구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앞세운 생존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간편결제 시장 성장, 기존 결제시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새 성장 모델의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신한카드는 7일 국내 최초로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3년간 장기 협력을 맺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직구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신한카드 디지털 전략 사례

구분	내용
외국 시장 협업 및 진출	- 미국 최대 쇼핑몰 '아마존'과 장기 협약(11월) - 베트남 현지 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 출범(7월)
빅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사업	- 개인 신용정보사업(CB) '마이크레딧' 출시 - 안면인식간편결제 '신한 페이스페이' 출시 - '신용카드송금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대출 관리 및 해외주식 소액 투자 서비스' 등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앞으로 아마존과 주요 쇼핑 행사와 해외 직접 구매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2017년부터 아마존과 협업해 국내 아마존 직접 구매 수요를 공략해왔다.

이는 국내 카드사가 국내 쇼핑몰과 제휴하거나 일부 글로벌 결제사와 해외 직접 구매 연계 행사를 진행한 것보다 더 긴밀한 수준이다. 신한카드는 7월에도 아마존 프라이머리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아마존 한국어 서비스 연계 행사를 지속해왔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자사 빅데이터와 디

지털 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달에는 업계 1위 카드사의 장점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사업(CB)을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관심도 높다. 신한카드 '마이크레딧'으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2500만 명의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도를 평가·제공한다. 이 모델은 연 매출 1억 미만 영세 사업자의 매출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달 선보인 '신한 페이스페이'도 주목할 만하다. 신한 페이스페이 역시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과 모바일 본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 대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페이스페이는 안면 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 확인과

카드정보, 얼굴정보를 등록한 뒤 카드나 휴대전화 없이 안면 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8월 1일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했으며 연말까지 제휴 대학교에서 교내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외국 시장 연계와 디지털 기술 기반 수익 다각화는 다른 카드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3분기 순이익 139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누적 순이익 규모도 4111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이는 7월 베트남 현지 법인 '신한 베트남파이낸스' 출범과 할부금융, 리스사업 등 사업 다각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외국 시장 연계와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는 수익 확대 지속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 활용 능력 갖춰라"

윤석현 금감원장 부산대 특강 "혁신 주체는 기술 아닌 사람 핀테크가 이끌 미래 대비해야"



(WEF)은 향후 5년간 단순·반복적인 일자리 8000만 개가 없어지지만 AI, 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일자리 1억3000만 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등의 혁신 기술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곧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이런 역량을 갖춰 핀테크가 가져올 미래 금융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핀테크 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인재라고 꼽았다.

윤 원장은 "한국 금융이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하는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금융 혁신의 주체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을 위한 금융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블룸버그,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세계적 빅 테크(거대 핀테크) 기업과 KB국민은행의 전문가들이 최신 핀테크 동향과 AI 시대의 인재상을 소개했다. 캠퍼스 특강은 14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도 진행된다.

김범근 기자 nova@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부산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이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캠퍼스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첨단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만큼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은행권 사회적금융 공급 '3542억'

기업 727억·신한 644억 順

올해 3분기까지 민관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가 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을 평가했다. 먼저, 공공 부문은 총 3329억 원을 1578개사에 공급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23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공급 규모 1937억 원과 비교하면 약 14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주요 공급 실적으로는, 대출 분야에서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공급이 주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376억 원이 공급됐지만, 3분기까지 100% 증가한 758억 원이 공급됐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성장금융

과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하위펀드의 투자 집행으로 올해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3분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은 총 3542억 원(25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52억 원(72%)이 사회적기업 지원 금액이었고, 이어서 협동조합 872억 원(25%), 마을기업 86억 원(2.4%)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727억 원(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644억 원, 18%)과 농협(561억 원, 16%)의 실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용정보원 내부에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평가시스템은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임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현대모비스 “中시장 잡아라”... ‘5대 현지화 전략’ 발표

‘현지개발·조달 체계 구축’ 급변하는 시장 효율적 대응
 ‘원가 경쟁력 확보’ 위해 중국사업 역량 강화팀 신설
 권역·제품별 ‘영업 전략 세분화’...기술홍보 강화도

현대모비스가 중국 현지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과 현지 조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전략’을 7일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내 사업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품질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 현지 밀착 경영을 강화해 지역 완성차 업체 공략에 나선다. 본사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현지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이날 발표한 5대 특화 전략은 △핵심기술 현지개발 체계 구축 △원가 경쟁력 강화 △현지조달 체계 구축 △영업 전략 세분화 △기술홍보 강화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우선 전동화, 전장 등 전 분야의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구축 중인 기술연구소, 품질센터,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 기술개발 거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너지를 강화해, 혁신기술 발굴부터 양산부품 설계 및 검증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사업 역량 강화팀’을 신설해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업무를 부여한다. 제품설계 전부터 개발 후 영업단계까지 전 과정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중국구매센터’도 함께 신설해 현지 협력사를 새로 개발하는 등 현지 조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국 내 부품사의 품질이 점차 향상되며 현대모비스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현지 협력사를 발굴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유연한 재고 관리 등을 가능케



중국 상하이에서 열고 있는 국제 수입박람회(ICEV)에 처음 참가 중인 현대모비스가 중국 현지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전략’을 7일 발표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확보한 핵심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업과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제품별, 업체별로 세분화된 영업 전략을 수립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부품을 제안하는 맞춤형 영업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억5000만 달러 수준이던 중국 현지 수주 금액은 지난해 7억3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수주 금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도광 현대모비스 중국사업담당(부사장)은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현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핵심부품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중국 완성차 업체를 넘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수주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40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전동화·전장·외장 등 26종의 핵심 부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 세계 15만 개 업체 바이어가 집결하는 대형 박람회인 만큼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부품을 전시해 실질적인 영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증강현실 내비’로 위험 알려주고 차량 안에서 주유비 등 자동결제

현대車 OS 혁신기술

‘필기인식’ 기능 등 탑재
 사람-자동차 연결성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7일 선보인 독자적 운영체제(OS)의 주요 기능은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차량 내 결제 시스템 △필기인식 등 탑승자와 자동차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혁신적 기술들이다.

AR 내비게이션(사진)은 길 안내 시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띄우고 그 위에 차량 움직임 감지센서와 지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주행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해준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 길안내를 제공했던 기존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운행 정보를 전달해 운전자가 골목길이나 교차로, 고속도로 출구 등을 잘못 진입하는 실수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차선, 전방 차량 및 보행자와의 거리 정보를 활용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음과 함께 AR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차량 내에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차량 내 간편결제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결제서비스 전용 스마트폰 앱에 차량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한 이후 제휴 주유소 및 주차장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결제 안내창이 표시되고, 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결제는 물론 제휴 멤버십 사용, 적립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내 간편결제 기술 구현을 위해 △SK에너지 △파킹클라우드와 같은 주유·주차 회사를 비롯해 △현대 △신한 △삼성 △롯데 △비씨 △하나 등 모두 6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패스트푸드나 커피체인점, 전기차 충전 등 자동차 사용자에게 필요한 영역으로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 OS를 이용하면 필기인식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터치패드에 손가락으로 문자와 숫자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고도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전화발신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어 자동 완성 등의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운전자나 동승자의 입력 자세에 맞추어 필기 인식과 제스처 각도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터치패드의 표면은 평면이 아니라 사용 편의성을 위해 오목한 곡면으로 설계돼 사용자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범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 필기감을 끌어올렸다.

김준형 기자 junior@



BMW, 콤팩트 SAV ‘뉴 X1’ 출시 BMW 코리아가 7일 프리미엄 콤팩트 SAV(Sports Activity Vehicle) 뉴 X1을 공식 출시했다.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X1의 가격은 △드라이브 모델이 49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가 5270만 원이다. 사진제공 BMW 코리아

삼성전기 46돌 “메가트렌드 분석 미래 준비”

국내 4개 사업소·6개 해외법인
 임직원 해외 포함 3만7000명
 연매출 8兆 ‘글로벌 기업’ 성장



삼성전기는 전자 부품 국산화를 위해 1973년 설립됐다. 삼성전자와 산요가 합작 설립한 삼성산요파츠가 전신이다. 창립 당시 임직원 900명, 매출 7800만

46번째 생일을 맞은 삼성전기가 조촐하게 창립기념일을 보내며 미래 준비를 다짐했다.

삼성전기는 1일 창립 4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같은 날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이날 창립기념식은 수원 본사, 세종, 부산사업장에서 동시 개최됐고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전 임직원이 시청했다.

이운태(사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5년간 우리는 근원적 체질 개선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사업구조 개선을 해냈고, 이를 통해 2020년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하고 세계적인 부품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며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주어진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실행력, 생산성, 품질에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통해 시장과 기술의 메가트렌드(Mega Trend)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래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원 이었으나 직원수는 41배, 매출은 10만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국내 1만1700명, 해외 2만5000명의 임직원이 국내 4개 사업장, 해외 6개 생산법인에서 8조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MLCC(적층세라믹 캐패시터) 수요 회복 지연으로 실적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 3분기 매출 2조2721억 원, 영업이익 180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 59% 감소했다.

4분기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주요 거래선의 재고 조정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부터 MLCC 수요 회복과 5G, 전장 관련 고사양 부품 채용 확대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화학, 오산에 국내 최대 석유화학 테크센터 구축

1100억 들여 대전센터 이전

LG화학이 경기도 오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전문 테크센터를 신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대전 기술연구원 부지에 있던 테크센터를 오산에 신축, 이전한 것이다. 총 1100억 원을 투자했다.

LG화학 테크센터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솔루션 지원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TS&D 전문조직이다.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이번에 신축한 오산 테크센터는 축구장 6개 크기인 약 1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약 7000평 규모의 5층 건물로 지어졌다. TS&D 전용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파일럿(Pilot)동, 실험동, 사무동 등 주요 연구동과 60여 개의 특성화된 실험실 및 전시실이 들어섰다.

신제품 개발과 실험 설비로 쓰이는 파일럿 시설은 웬만한 회사의 생산설비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LG화학 측은 설명했다.

압출가공, 사출기술 등의 응용기술팀과 폴리올레핀(PO), 고기능합성수지(ABS), 고흡수성수지(SAP), 친환경합성고무(SSBR) 등 주요 제품별 전담 조직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주하며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삼성디스플레이, QD로 '초격차' 가속

LCD 공급 과잉에 55인치 패널 가격 첫 100달러 붕괴
프리미엄 라인 강화... QD 상용화에 13조 투자 '승부수'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QD(퀀텀닷) 디스플레이 투자에 집중한다.

7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달 55인치 TV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이 98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초 143달러를 기록한 이후 단 한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기록했던 가격이 10월 들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55인치 LCD 패널 가격이 100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IHS마킷이 패널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중국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LCD 패널을 끊임없이 생산했던 BOE마저 판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3분기 1000억 원에 가까운 5억8800만 위안(약 972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2분기 이후 13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

기만의 적자전환이다. 중국 업체들이 치킨게임을 통해 LCD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제 발목까지 잡은 격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QD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지난달에는 QD 디스플레이 신규 라인 구축과 연구개발에 총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료로 낙점한 퀀텀닷은 나노미터(nm)의 지름을 가진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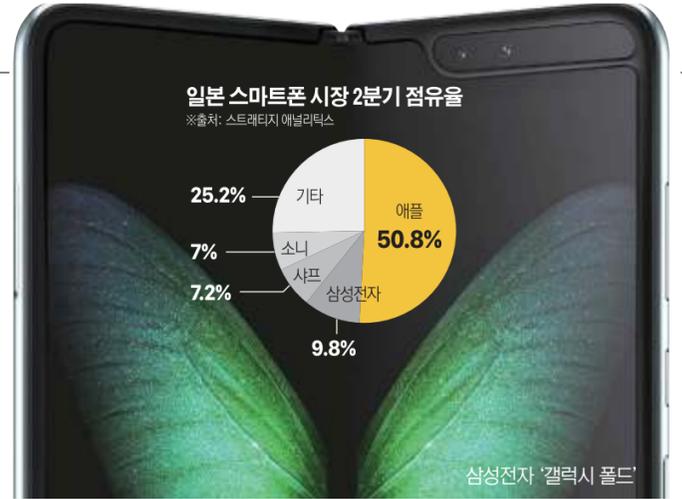
흡수하고 발광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입자 크기에 따라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고 파장 폭이 좁아 순도 높은 색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자연색을 더욱 정확하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광시야각, 고해상도 구현은 물론 디자인 변형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삼성전은 오래전부터 퀀텀닷 재료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전념해왔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카드뮴이 없는 퀀텀닷 재료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대만 타이베이 그래นด์메이플 호텔에서 '삼성 올레드 포럼 2019 타이베이'를 개최하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노트북 시장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행사에는 글로벌 IT 업체와 주요 ODM 업체 등 총 25개 고객사 3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올레드 노트북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올레드만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적 유연성, 무한대의 명암비, 뛰어난 야외 시인성 등 장점을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애플 천하' 일본서 韓·中 5G 통할까

내년 초 상용화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
삼성·LG 신제품 공개
샤오미도 "내년 진출"

리스를 선보인 이후 약 2년 만이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오랫동안 애플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2분기 일본시장에서 50.8%란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9.8%에 그쳤다. 현지 기업인 샤프(7.2%)와 소니(7%)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애플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데는 5G와 연관 있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5G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5G 스마트폰이 필요하지만, 애플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달리 삼성과 LG는 이미 올해 글로벌 시장에 여러 모델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샤오미 또한 2종(미믹스3, 미9)의 5G 제품을 판매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삼성, LG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당장 애플을 꺾고 1등을 차지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삼성과 LG전자 등은 지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5G 시장이 열리는 내년에 판매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5에 게재됐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애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애플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존재감을 과시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 일본 시장에서 향후 전략 및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샤오미는 내년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샤오미의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왕상 부회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진출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제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는 없으나, 2020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장에 이미 진출한 삼성, LG 또한 신제품을 잇따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통신사 KDDI를 통해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다. 앞서 11일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10도 공개했다.

LG전자 또한 비슷한 시기에 G8X 씽큐(국내명 V50S 씽큐)를 선보였다. LG전자가 일본시장에 프리미엄 모델을 출시한 것은 작년 1월 V30플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SK, 산업은행과 '착한 스타트업' 키운다

'소셜밸류 투자조합' 500억 목표

억 원, 옐로우독 20억 원, SKS PE 20억 원 등이다.

SK가 KDB산업은행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내년 초까지 80억 원을 더해 총 500억 원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SK는 7일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산업은행과 펀드 운용사인 옐로우독, SKS PE 등과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질 높은 교육,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이 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다.

결성식에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김태진 행복나래 사장, 장병돈 KDB산업은행 부행장,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유시화 SKS PE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그동안 "투자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여 자금이 회수되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민간 자본시장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이날 총 420억 원의 출자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200억 원, SK의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 100억 원, 이재웅 쏘카 대표 80

“고맙다 특보드”... 카카오, 3분기 최대 매출 ‘방긋’

작년보다 31% 늘어난 7832억... 영업이익 591억, 93% 경중
‘카카오톡 비즈보드’ 실적 견인... “하루 4억~5억 매출 목표”
웹툰·뮤직 등 유료 콘텐츠 한몫... 게임도 4분기 호실적 기대

카카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카카오톡 중간에 광고를 넣은 ‘카카오톡 비즈보드(이하 특보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액이 783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591억 원으로 93% 증가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카카오의 3분기 호실적은 특보드를 중심으로 한 수익 확대와 유료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신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세 등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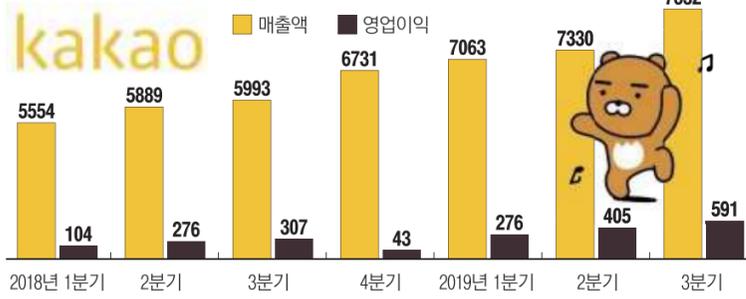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호실적

에 대해 “건강한 성장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실적을 견인한 주요 서비스인 특보드 매출은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624억 원을 달성했다. 특보드는 지난달 7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이전 클로즈베타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고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보드가 카카오톡의 제한적인 트래픽만 사용하고 있는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광고 단가가 상승해 실적 상승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보드는 오픈 베타 테스트를 통해 광고주와 업종을 확대하며,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카오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카카오톡만이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챗봇 및 다양한 랜딩 페이지, 비즈니스 솔루션과 결합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톡의 가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여민수 대표는 이날 진행한 2019년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특보드는 전략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으로 전반적인 방향성은 틀 안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연말 목표인 특보드 일평균 4~5억 원 매출은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부문은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 등 웹툰 플랫폼과 멜론을 중심으로 한 뮤직 콘텐츠의 이용자들이 증가하며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게임 콘텐츠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3분기에 출시한 테라 클래식과 달빛조각사가 양대 마켓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성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4분기에는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에서 검증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까지 한국에서 검증된 스토리 IP를

유통하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진행한 SK텔레콤과의 지분 맞교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달 28일 SK텔레콤과 3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SKT는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T 지분 1.6%를 보유하게 됐다.

여 대표는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양사간 시너지협의를 구성했고 AI, 5G, IoT 등 플랫폼 협력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의 기업공개(IPO) 일정과 관련해서는 “IPO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주주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현대중 “5G·AI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6개월간 사업 성과 점검
AI 음성인식 협동로봇 등
공동개발 제품 전시·시연
“韓 제조업 혁신 이끌겠다”



7일 동대문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KT-현대중공업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에서 양사 참석 임원들이 AI 음성인식 협동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KT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끈다는 목표다.

7일 KT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동대문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KT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부사장 등 양사 최고 임원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로봇사업부(현대로보틱스)과 글로벌 조선업체 1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KT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조선소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이 보유한 로봇 개발 기술, 선박 건조 기술과 KT가 갖

고 있는 5G 네트워크,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양사가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6개월간 5G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조선소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고도화를 위한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은 5G 네트워

크, 공동 상품화, 신규시장 공략, R&D 분야의 과제를 선정해 협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양사가 공동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된 로봇 관리시스템(HRMS on KT Cloud) △모바일 로봇(신형 호텔 어메니티 로봇) △AI 음성인식 협동로봇 △KT스마트 팩토리 솔루션(Factory Makers)을 전시했다.

향후 양사는 KT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현대중공업그룹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만 아니라 KT는 사용자와 근거리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5G MEC(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의 협업에서는 ‘디지털로 최적화 운영되는 초일류조선소’라는 비전 아래 KT 정보기술과 운영기술을 융합하는 ‘5G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 중에 있다. 네트워크 품질 최적화, 산업 안전,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통해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AI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KT 황창규 회장은 “5G B2B 서비스가 우리 산업에 가져올 변화는 놀라울 것이다. 특히 여러 서비스 중 스마트 팩토리는 5G B2B의 핵심 모델이다”며 “협업으로 양사가 한 몸처럼 움직여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훈 기자 yes@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LG U+, 세계 첫 상용화 불량 자동검출 시스템 개발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원격에서 5G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조정해 무선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5G 무선망의 품질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품질 데이터에서 서비스가 불량한 위치를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Engineering Support System)도 자체 개발했다.

이번 상용화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원격에서 손쉽게 5G 기지국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 출동 없이 품질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5G 무선망 품질을 최적화하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지국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안테나 조정은 수작업에 의존해 매일 변화하는 무선망의 품질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 품질 분석과 안테나 조정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5G 무선망 자동 최적화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전국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박송철 NW개발그룹장은 “5G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의 발굴과 기지국 서비스 방향 변경을 자동화해 상시 최적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기지국 품질 최적화 시간은 고객에게 최상의 5G 품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중기부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 발족

민간 전문가 20명 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해 인공지능(AI)과 제조데이터 정책을 구성하는 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중기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계 최강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코리아’ 정책의 일환으로 꾸러졌다. AI와 제조데이터 정

책 전반에 걸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거버넌스 △데이터·제조 △인프라 △서비스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5G 등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지만 AI·데이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넥슨 신작 ‘V4’ 정식 출시

넥슨은 신작 모바일 MMORPG ‘V4’를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넥슨은 앞서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속할 수 있는 서버는 총 50개로 구성됐다.

V4는 넷게임즈 개발진의 MMORPG 제작 노하우와 전작을 통해 선보인 연출력이 더해진 게임이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각자의 방식으로 실현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를



넥슨은 신작 모바일 MMORPG ‘V4’를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담고 있다. 넥슨은 V4 정식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겜생역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신규 캐릭터를 만든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하와이 1인 동반 여행 상품권’, ‘바디프랜드 팬텀2 코어 안마의자’, ‘아이폰 11 Pro’ 등 경품을 제공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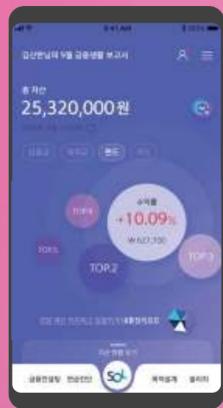
이재훈 기자 yes@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오픈뱅킹의 시작과 끝 신한 SOL로 오픈하라!

앱 하나로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오픈뱅킹시대
수수료 면제는 기본,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신한 SOL로 오픈뱅킹의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나의 자산을 모아
한 눈에 OK

- 오픈뱅킹을 통한 타행계좌 출금이체시, 이체한도 1일 최대 1천만원
- 오픈뱅킹은 신한은행을 포함,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제도로서, 위 화면은 그 구현 예시입니다.



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도
수수료 없이 OK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분석하고
솔루션 제공까지 OK

오픈뱅킹 시대를 여는
SOL만의 이벤트
이벤트 기간 | '19.10.25~12.31

- ☑ 오픈뱅킹 동의하고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하면 최대 500만원!
- ☑ MY자산에 금융기관 등록하면 최대 50만원! 기회는 최대 3번!
- ☑ 솔로 다른 은행계좌 이용해서 수수료 없이 이체 경험하면 최대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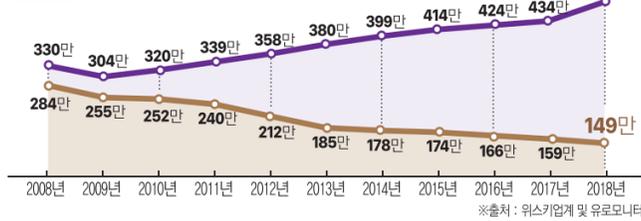
준법감사인 사전심사일 제2019-2-3029호(D019.10.24~2020.01.31) ※ 5만원 이상 정액에 대한 자채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며 자채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 본 이벤트 수령금액을 포함하여 기타 소득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솔(SO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한 술’ 붐에 와인 웃고 위스키 울었다

주 52시간제·혼술족 증가에
폭음 줄고 저도주 문화 확산
위스키 판매 10년 새 반토막
대기업 뛰어들며 대중화
국내 와인 시장 45% 커져

위스키 및 와인 시장 규모 변화 (단위: 상자)

위스키 1상자=500ml×18병, 출고량 기준
와인 1상자=750ml×12병, 판매량 기준



대표적인 수입 주류인 위스키와 와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폭음을 지양하는 대신 저도주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위스키 소비가 감소한 반면, 가격을 낮추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린 와인 소비는 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두 주종의 시장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입 주류 시장의 ‘패권’이 와인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일 위스키업계에서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149만 상자(1상자 500ml×18병)를 기록했다. 2008년 284만 상자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위스키의 추락 원인은 △김영란법 시행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인 회식 감소 △저도주 선호 문화 △혼술족 증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사회 분위기와 선호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대조적으로 와인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판매량은 478만 상자(1상자 750ml×12병)를 기록했다. 2008년 판매량인 330만 상자에 비해 10년 만에 45%가량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는가 싶던 와인 시장은 이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하이마트, 롯데주류 등 대기업이 직접 와인 유통·수입에 뛰어들며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와인 대중화로

이러진데 따른 것이다.

업계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도 와인 인기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부터 매출기준 업계 1위에 올랐던 신세계 L&B의 경우 △혼술족을 겨냥한 소용량 와인 출시 △저도주 발굴 △주류전문점(와인앤모어) 출점 등으로 와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오류 유로모니터 식품료부문 선임 연구원은 “최근 대기업 계열 주류 업체들이 대형마트나 창고형 매장에 와인을 저렴하게 공급해 유럽에서 식사 시 가볍게 마시는 3유로(약 4000원) 이내의 테이블 와인과의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와인 가격이 많이 내렸다”며 “과거엔 와인이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주류였다면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식사 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술로 용도가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뜨거워진 위스키 업체들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올해 초 ‘임페리얼’

영업권과 판권을 매각했고 희망퇴직을 통해 정규직 직원 수를 줄였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 위스키 대신 ‘로얄살루트’·‘발렌타인’ 등 프리미엄 인터내셔널 위스키 브랜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이나코코리아는 내년 6월 경기도 이천 공장 가동을 멈춘다. 이 공장에서는 수출용 스미노프(보드카)와 군납용 원저(위스키) 등을 생산했다. 회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침체한 위스키 시장에서도 ‘고급’으로 분류되는 싱글 몰트 위스키와 저도주 위스키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나만을 위한 ‘가심비’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 덕분에 싱글몰트 위스키는 10년 사이 판매량이 2배(34만 l→68만 l) 증가했다. 저도주 위스키 역시 웰빙을 중시하는 음주 문화에 힘입어 지난해 73만 상자가 판매됐는데 이는 2012년 판매량(4000상자)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7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반값 삼겹살’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개점 26주년을 맞아 400여종의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1등급 국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을 수입 냉동 삼겹살(100g당 990원)보다 저렴한 100g에 840원(KB국민카드 결제 기준)에 판매한다. 뉴스시스

이마트 쓱~ 인기 이어서 “삼겹살이 100g에 840원”

‘쓱데이’ 이어 개점 26주년 행사
400여종 상품 최대 ‘반값 할인’

이마트가 ‘쓱데이’ 흥행 열기를 개점 26주년 행사로 이어간다.

이마트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13일까지 삼겹살과 전복, 고등어 등 총 400여종의 행사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상품은 삼겹살이다. 이마트는 2013년 3월 이후 80개월 만에 최저가이면서 수입 냉동 삼겹살(100g당 990원)보다도 저렴한, 1등급 이상으로 엄선한 국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을 각각 100g에 840원에 판매한다. 다만, KB카드 결제시 가격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한돈자조금과 사전 준비를 통해 총 240톤, 돼지 2만여 마리의 삼겹살을 확보했다. 이는 평상시 이마트 1주일치 삼겹살 판매량의 6배가 넘는 물량이다. 목심까지 합치면 행사 기획 물량만 300톤을 넘어선다.

제철 수산물인 전복, 고등어도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이마트는 13일까지 완도 등 대표 산지에서 공수한 국산 전복을 약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가격은 대(大) 사이즈

(3피), 중(中) 사이즈(5피) 각 9900원, 소(小) 사이즈(7피) 9800원이다.

국민생선 고등어는 ‘10년 전 전당가격보다 싸게!’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행사 기간 이마트는 부산 인근 해역에서 주로 어획한 국산 생고등어(大)를 마리당 기준 가격보다 40% 가량 저렴한 1950원에 판매한다. 이는 올해 최저가인 2000원은 물론 2009년 이마트 전당 가격 1980원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가성비 와인도 알차게 마련했다. 이마트는 1년 간의 기획을 거쳐 3~4만 원대의 프리미엄 싱글빈야드급 와인을 1만 원대 ‘반값’에 기획한 ‘온드라가 싱글빈야드#26 까베르네쇼비농(750ml)’을 1만9800원에 판매한다. 싱글빈야드는 칠레 와인 중 상위 두 번째 등급에 속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마트 개점 26주년 행사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가운데 행사 시작 이후 1인당 구매 금액(객단가)이 전년 대비 10% 가량 높아지는 등 초기부터 흥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6년 만에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한 삼겹살을 비롯해 각종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대거 마련한 만큼 한껏 달아오른 소비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혼술 부담없는 저도 막걸리, 2030에 통했죠”

유통가 팀팩워

서울장수 영업기획팀

인생막걸리 1년 만에 320만 병
유통기한 짧은 생막걸리도 자랑

“한국 사람이 빵을 먹다가도 자연스럽게 밥을 찾듯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시 찾게 되는 맛’, ‘막걸리 기준이 되는 맛’이 서울장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우민지 장수 브랜드매니저)

“장수막걸리” 생산업체인 서울장수가 ‘더 젊어진’ 제품으로 ‘젊은’ 막걸리 소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22년만에 신제품 ‘인생막걸리’ 등을 내놓으며 신제품 개발, 수출 등 브랜드 관련 업무를 맡은 서울장수의 영업기획팀을 만났다.

국내 막걸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장수 생막걸리는 서울 7개, 인천 1개 공장에서 당일 생산, 당일 유통을 표방하는 유통기한 10일의 신선한 막걸리임을 자부한다. 이상민 팀장은 “장수 생막걸리는 상품의 본질인 ‘신선함’을 대표하는 짧은 유통기한이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로 ‘혼술’ 문화가 확산되자 서울장수 영업기획팀은 지난해 10월 젊은층을 겨냥한 알코올도수 5도짜리 저도주 ‘인생막걸리’를 새로 출시했다. 1년여만인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320만병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이다. ‘망리단길’로 화제를 모은 서울망원동에도 홍보관을 기획해 젊은층과 접점을 늘렸다.

우민지 매니저는 “2030세대도 막걸



서울장수 영업기획팀이 서울 마포구 망원로 장수막걸리 체험관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리를 체험해보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에게 막걸리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품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홍보관의 막걸리 빗기 체험 신청자는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해 뿌듯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비자 호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층과 막걸리를 이어주고 싶은 영업기획팀의 고민은 계속된다.

김철희 매니저는 “막걸리 하면 ‘올드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자체가 슬픈 일이다. 막걸리 업계가 전통주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맥주, 위스키, 와인 패키지는 전통 계승에 대한 자부심이 녹아있다. 장수 생막걸리도 전통 감성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간다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희 매니저는 “소비자와 커뮤니케

이션이 없었던 점, 제품 포지셔닝이 불명확한 점은 장수막걸리의 ‘장수’에 걸림돌이 된다. 소통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수는 제품 다각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다시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걸리 수출은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다 2015년부터 하락세가 주춤, 지난해에는 소폭 상승했다.

곽혜영 매니저는 “장수막걸리는 수출 전용 제품으로 개발돼 호주,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생막걸리 특성상 냉장보관, 운송 등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동의 1위인 장수 생막걸리의 맛을 수출용으로 실현시키고, 제품을 세계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키티버니포니’ 입은 맥심

커피믹스 4종 한정 패키지

동서식품은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KITTY BUNNY PONY)’와 손잡고 ‘맥심×키티버니포니 스페셜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스페셜 패키지는 지난해 카카오프렌즈와의 협업(총 2회)에 이은 맥심 커피믹스의 두 번째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다.



키티버니포니는 기하학적인 그래픽에 자연을 모티브로 한 컬러풀한 패브릭 제품을 선보여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브랜드다.

맥심×키티버니포니 스페셜 패키지는 △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맥심 모카골드 심플라떼 △맥심 화이트골드 등 총 4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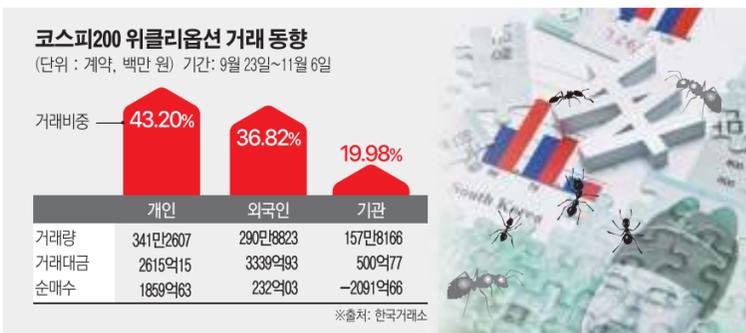
제품 패키지에는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머그&코스터, 텀블러, 스테인리스컵, 접시, 무릎담요, 에코백 등 6종의 한정판 굿즈(Goods)가 포함되어 있다.

고은희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스페셜 패키지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파생시장 ‘메기’ 된 위클리옵션... “개미를 잡아라”

만기 짧아 변동성 효과적 대응
개인투자자 비중 전체의 43%
수수료 면제·상품권 제공으로
개인 고객 유치 경쟁 나서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활발히 거래하며 파생상품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를 사로잡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9월 23일) 이후 6일까지 개인의 거래 비중은 전체의 43.20%에 달한다. 반면 외국

인과 기관은 각각 36.82%, 19.98%를 기록했다. 연기금과 보험, 은행 기관의 참여는 없었다. 통상 옵션매매는 과도한 프리미엄(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장참여자는 대부분 기관이었다. 그러나 위클리옵션은 만기(매주 목요일)가 일주일로 짧고 돌발 이벤트

(무역분쟁, 북미협상 결렬 등)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거품 우려가 없다. 또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헤지 수단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김동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기에 용이하다”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행사가격과 만기일 기초자산 증가 간의 가격 차이를 추구하는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거래량은 개인투자자 341만2607계약, 외국인 290만8823계약, 기관 157만8166계약으로 총 789만9596계약이 발생했다. 다만 거래대금에서는 외국인(3339억9300만원)이 개인(2615억1500만 원)을 앞섰다. 기관은 500억7700만 원에 불과했다.

위클리옵션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최근 삼성선물은 신규 개인고객에 한해 위클리옵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 대우와 키움증권도 커피 쿠폰을 제공하

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편 위클리옵션 시장이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도 다양한 전략을 적용해 새로운 투자 개발에 힘쓰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코스피200지수 변동성과 자본비용 규제와 관련된 위험 관리에 위클리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며 위클리옵션 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돼 왔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지금은 주식을 팔기보다 사야 할 때”

황찬영 맥쿼리증권 대표

무역분쟁 등 악재, 주가 반영 사이클상 올 4분기가 바닥
반도체·전기차배터리株 주목



에 없는 섹터인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를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며 “또 경기 민감주 중 2016년 이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배당수익률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배당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한국 경제를 쪼개보면 구조·사이클(경기)·이벤트 세 부분으로 나뉜다”며 “구조적 부분은 과거부터

점점 악화하고 있었고 이벤트 측면에서는 각종 무역분쟁이 힘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이클이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구조적인 문제 악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10월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하강과 상승을 반복했지만, 지난 6~7년간 경기가 순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황 대표는 “결국 디플레이션은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빅터 슈베츠 맥쿼리아시아 수석책임자와 래리 후 맥쿼리아시아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참석, 아시아·중국 시장에 대해 분석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갑질 논란’ 남양유업, 끝없는 추락

주가 114만원서 47만원대로 ‘뚝’
재투자 안해 반등 기회도 못 찾아

총은 827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4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거의 3분의 1로락이 난 셈으로 시가총액 역시 34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만 주가는 23.95% 빠졌다.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재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재기의 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종가 기준 47만4500원을 기록했다. 1일에는 장중 46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락세를 거듭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녹취록이 유포되기 전날인 2013년 5월 2일 남양유업 주가는 114만9000원으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였고 시

실적 역시 내리막길이다. 제품 밀어내기 파문으로 촉발된 ‘갑질 논란’이 일어난 2013년부터 실적이 급감했다. 2012년 637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3년 -175억 원, 2014년 -261억 원까지 떨어졌다.

2015~2016년 공격적 영업에 따라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50억 원대를 맴돌며 정체된 상황이다. 시장점유율은 서울우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3위인 매일유업과 격차가 좁혀졌다.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 매일유업이 남양유업의 2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매일유업이 성장세를 거듭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꾸준히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악한 잇몸 케어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주스 반응

無
사카린 나트륨

無
SLS

無
동물성 원료

無
침강탄산 칼슘

無
파라벤

無
안식향산 나트륨

LUBAS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특수관계자〉

현대·기아차 내부거래 40% 유지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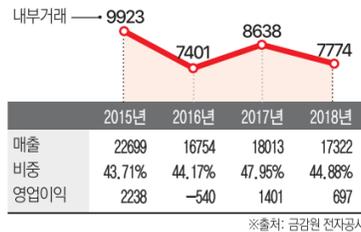
유코카캐리어스

자동차 운송기업인 유코카캐리어스는 2002년 스웨덴 해운사 발레니우스와 노르웨이 빌헬름슨이 현대·기아차와 함께 합작해 신설된 법인이다. 당시 현대상선의 자동차 사업부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발레니우스와 빌헬름슨이 각각 지분 40%를 보유한 가운데 현대차는 12%, 기아차는 8%를 나눠 갖고 있다.

출범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운송 물량 전부를 담당했지만 이후 현대글로벌비스와 물량을 나눠 갖게 되면서 운송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몇 년간 40%대의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해 내부거래를 통해 77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88%로 전년(47.95%) 대비 소폭 줄었다. 내부거래 상

유코카캐리어스 거래실적 현황 (단위: 억 원)



스웨덴 해운사와 합작 신설법인 현대·기아차 수출 줄어 물량 축소 현대글로벌비스 등 관계사 거래 우회 작년 매출 45%가 내부거래

당수는 현대차(2243억 원)와 기아차(2008억 원)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벌비스 역시 1500억 원대의 매출 거래를 도왔다.

지나해부터 올해까지 현대·기아차의 해상 수출 물량의 최소 40%를 맡는 내용의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2012~2015년 60%로 맺었던 계약은 2016년과 2017년 50%로 축소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잔여 물량은 현대글로벌비스로 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물량 감소 속에 회사의 매출도 줄고 있다. 2015년 2조2699억 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1조6754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4% 감소한 1조7322억 원, 영업이익은 50.29% 줄어든 697억 원이다.

다만 다른 관계사와의 거래는 되레 늘고 있다. 최대주주의 계열사 발레니우스 빌헬름슨 로지스틱스(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와의 매출 거래는 2016년 624억 원에서 지난해 1423억 원까지 늘었고, 2016년 676억 원 수준이던 현대글로벌비스와의 거래 역시 최근 2년간 평균 16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 덕분에 지난 4년간 현대·기아차와의 거래 매출 감소율은 81.99%인 데 반해, 회사의 전체 매출 감소율은 23.69%로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어센드유한회사 대상 500억 유증 결정 카리스국보, 최대주주 또 바뀌나

66년된 기업이 올해만 4번째

12월이면 카리스국보(옛 국보)의 최대주주가 다시 한번 바뀔 전망이다. 업력 66년의 기업이 1년이 채 안 돼 네 번째 최대주주를 맞이하는 신세가 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리스국보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코어센드유한회사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발행가는 3110원이고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수만 1607만7171주에 달한다. 현재 발행 주식 수의 67%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12월 20일 증자대금이 납입되면 최대주주는 코어센드유한회사로 바뀌게 된다.

카리스국보는 1953년 설립된 화물운송 물류기업으로 1977년 흥아해운이 인수했다. 하지만 해운업 불황으로 최근 3년간 흥아해운의 영업손실이 계속되자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4월 사모펀드 품에 안겼다. 당시 최대주주 지분 25.32%를 사들인 곳은 제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조합을 결성한 제이에스2호사모투자조합 합자회사로 150억 원에 인수했다. 제이에스2호는 해당 지분 이외에도 카리스국보가 발행한 1회 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5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곳이 폴리염화비닐(PVC) 전문기업인 비상장사 카리스다. 7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카리스의 유철 대

카리스국보 최대주주 변경 현황

일자	최대주주	보유 지분
1977년 11월	흥아해운	21.08%
2019년 4월 24일	제이에스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25.32%
8월 27일	카리스	22.53%
12월 20일(예정)	코어센드유한회사	40.15%

표와 하현 사장이 국보의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사명을 카리스국보로 변경했다. 유 대표는 취임사로 '카리스와 국보는 카리스국보로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걷는 운명공동체가 됐다. 카리스국보는 카리스의 자회사'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카리스 지분 92%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카리스와 연관이 있지만 투자조합 특성상 카리스가 출자한 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7월 말 제이에스2호 투자조합에서 에스더블유투자조합1호와 제이에스투 투자조합1호가 사원 탈퇴하면서 제이에스2호 지분은 10.23%로 축소됐고, 카리스는 별도로 카리스국보의 3자배정 증자에 참여해 7.41%의 지분을 획득했다. 이어 8월에도 5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지분을 22.53%로 늘리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증자 결정으로 카리스국보의 주인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주최, 사)라벨라오페라 | 주관, 주)쏘아베 | 문의, 02 572 6773 | 예매, 예술의전당 02 580 1300 | INTERPARK 1544 1555

2019 라벨라 그랜드 오페라 도니제티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

MARIA STUARDA

G. Donizetti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9. 11. 22 금요일 - 24 일요일, 3일 4회 공연

La Bella Oper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투자 증권 KOREA OPERA ASSOCIATION

상폐 리스크에 계속기업 불확실 '스튜디오썸머' 최대주주·사명 변경... '재기' 나서

스튜디오썸머가 최근 행남사로 사명을 바꾸고 최대주주 변경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최대주주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지난해 영화사 사나이픽처스·윌광을 인수하고 영화 투자배급업에 야심차게 진출했다. 하지만 7월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영화사업을 종결했던 이재필 전 대표이사 등이 줄줄이 사임하면서 사실상 영화 부문 사업을 접게 됐다.

위기에 몰린 사측은 재기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정보연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면서 행남사로 사명을 바꿨

고, 같은 달 22일에는 86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마크투인베스트먼트에서 이연에프엔씨 외 2인으로 변경됐다. 이연에프엔씨는 정 대표가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식품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리스크를 비롯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제는 여전히 위험 요소로 꼽힌다.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 삼영회계법인은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감사 결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기순손실로 인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68억 원가량 초과하고, 주권매매거래 정지로 전환사채(CB)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1월 7일 17:00, KST)

종류	전일 대비	6개월 대비
비트코인 가격	-121,000원 (1.1% ▼)	2,128,452원 (24.9% ▲)
이더리움 가격	-3,500원 (1.6% ▼)	-40,397원 (15.6% ▼)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43,400	-6,100 (1.7% ▼)	모네로	74,550	650 (0.9% ▲)
리플	345	-2 (0.6% ▼)	비트코인골드	10,300	190 (1.9% ▲)
라이트코인	72,400	-650 (0.9% ▼)	이더리움 클래식	5,885	-20 (0.3% ▼)
대시	84,900	-600 (0.7% ▼)	퀀텀	2,577	-89 (3.3%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매물도 없고 매수 문의도 없어”...시장은 ‘무덤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격 지정했지만 막상 현지 주택시장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결국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단지들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반면, 사업 초기 단계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관련해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반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겠다는 전화는커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다”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 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초기 단지의 경우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팔겠다는 전화는커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다”며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어서 전혀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회의실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개업소 “당분간 상황 지켜보아야”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 ‘여유’ 초기 단계 단지들은 수익성 우려 대상 제외된 목동·과천 한숨 돌려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여의도동 D공인 관계자는 “이곳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정도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 매물 부족 속 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명단에서 빠진 목동과 경기도 과천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을 지정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5단지 한 주민은 “이번에는 상한제 대상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파트

가 워낙 남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단지들은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현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장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4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6개월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단지가 6개월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20여 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가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 철폐와 규제 개혁을 위한 회의’를 개최기로 한 것이다.

권택진 미래도시시민연대운영본부장은 “당초 우리의 주장은 분양가 상한제 2년 유예 등이었다”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궐기대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 등에 대한 각 조합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박종화 기자 pbell@

셈법 복잡해진 대기 수요자들

청약 低점자 ‘非상한제’ 지역 노려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로 앞으로 청약 대기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청약 고(高)가점자와 저(低)가점자가 다르게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은 물론, 청약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짜 일반아파트 구매시장으로 적극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판이다.

7일 직방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할 단지는 모두 11개 단지 2만6917가구다. 내달에만 7개 단지, 약 2689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에는 청약 쓸림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 원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보다 10~20% 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결국 청약 고점자가 유리한 만큼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다면 분양가 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청약대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가점

분양 시기	단지명	평균 당첨 가점	최저 가점	최고 가점
8월	이수 더 프레티움 푸르지오	67	56	79
9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65	47	79
9월	래미안 라클레시	69	64	79
10월	역삼 센트럴 아파크	67.5	63	75

*출처: 아파트 투유

기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며 “다만 전매 규제가 5~10년으로 강화돼 환급성 제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낮은 경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비(非)상한제 지역을 노려보는 게 좋다. 함 랩장은 “치열한 청약 경쟁을 우려하는 청약자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거나 분양권 및 입주권,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한화건설, 내년부터 신규 브랜드 FORENA로

‘포레나 영등포’ 등 8곳 변경

한화건설은 이전 브랜드인 ‘꿈에그린’으로 분양해 공사 중인 8개 단지의 명칭을 신규 브랜드 ‘포레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브랜드가 변경되는 단지는 내년 이후 입주 예정인 단지들로 총 8곳, 5520가구(오피스텔 1127실 포함)다. 포레나 1호 입주

단지는 2020년 1월 입주 예정인 ‘포레나 신진주’다. 서울에서 가장 처음 입주하는 포레나 단지는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위치한 ‘포레나 영등포’가 될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이들 8개 단지에 포레나 브랜드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건물 외벽, 출입 게이트를 비롯한 단지 외부 사인물에 표시되는 브랜드 마크를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채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형 1박 2일 - '평주와 다비(茶道)를 까요'
PART6 힐링 찾길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오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이 미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뎀을 흘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다.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례'로 치지민, 사실은 슬며 시라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현조씨가 그려온 11월호는 빙빙하기 싫어 공언해요!
민디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천동과 현비를 위한 창작으로 운영적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박수영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박수영의 김현조

타면타면 산책 청라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라언덕으로 가는 길에 기곡 동우생각을 증명했다. '별의 고향'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재하는 한나리꽃 향내 맡으며... '아름 직배운 노래'에도 노랫말이 꽃이 때를왔다. 우라라 근대 풍경을 묘사한 백화골목을 차차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라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6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넘쳐나 사람 넘쳐나 풍요로운 피아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총망라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 식객들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채무부존재 소송 중 빚 독촉 안돼”

법원 “SKT·KT,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피해자들에 위자료 줘야”

신용정보회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후에도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위입받은 채권 추심을 계속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동사가 직접 추심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는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외 103명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위법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SK텔레콤과 KT의 불법 추심 행위를 일부 인정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SK텔레콤(5명)과 KT(3명)에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보조금 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기범 일당은 2011년 11월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해 휴대전화 개통 시 이동사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노리고 가입자를 모았다. 이들은 ‘휴

대전화 회선 1대당 15만 원, 2대당 30만 원, 3대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며 광고했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6개월 후 해지하면서 잔금을 완납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사기범 일당은 1405명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일정 기간까지만 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 명의로 연체된 휴대전화 이용요금은 연체 상태로 남았다. 결국 피해자 중 일부인 원고들은 이동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로 인한 요금인 만큼 변제의 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은 계속됐다. 원고들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 행위를 이동사들이 방조한다며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후에도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 상환 독촉 문자 메시지와 가압류 통고서 등을 보내는 등 압박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동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선행 손해배상(첫 번째) 소송의 강제조정은 이동사들이 원고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미 등록돼 있으면 삭제해야 한다”고 정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KT는 선행 손해배상 소송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대표는 “채무부존재 소송 중에는 채권 추심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면서도 “추심 문자 등을 삭제한 피해자들은 인정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입동 앞두고 기온 뚝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입동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시장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시

檢, 대마 상습흡연 SK그룹 3세 실형 구형

1심서 집행유예... 피고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31)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이 1심과 같이 검찰과 범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공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앞으로 마

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정호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 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 씨와도 네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중용 기자 deep@

“금융 인프라의 미래 ‘제로페이’ 아날로그 카드에 갇혀 성장 더뎠다”

윤완수 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윤완수(사진)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웹캐시 대표)이 제로페이를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이사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특강’에서 “제로페이는 한국 최초의 직불 결제망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드(VAN)망이 너무 잘 돼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도 오프라인에서는 직불카드망을 쓸 수가 없다”며 “이것을 개선한 것이 제로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페이는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을 만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하이패스를 예로 들며 “금융이 산업에 융합되는 시대”라며 “미래 금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지금은 음식점에 주문받는 사람, 결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택시의 자동결제 서비스처럼 다 소프트웨어 어휘돼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페이 성장이 더딘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고, 아날로그(카드)에 갇혀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 시장은 핀테크 선진국인 중국의 알리페이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화제의 신간

“100만부 신화의 재탄생”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삼성문학상 수상 베스트셀러

소름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천만 관객 영화 <관상> (명당)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름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작이다. - 이청준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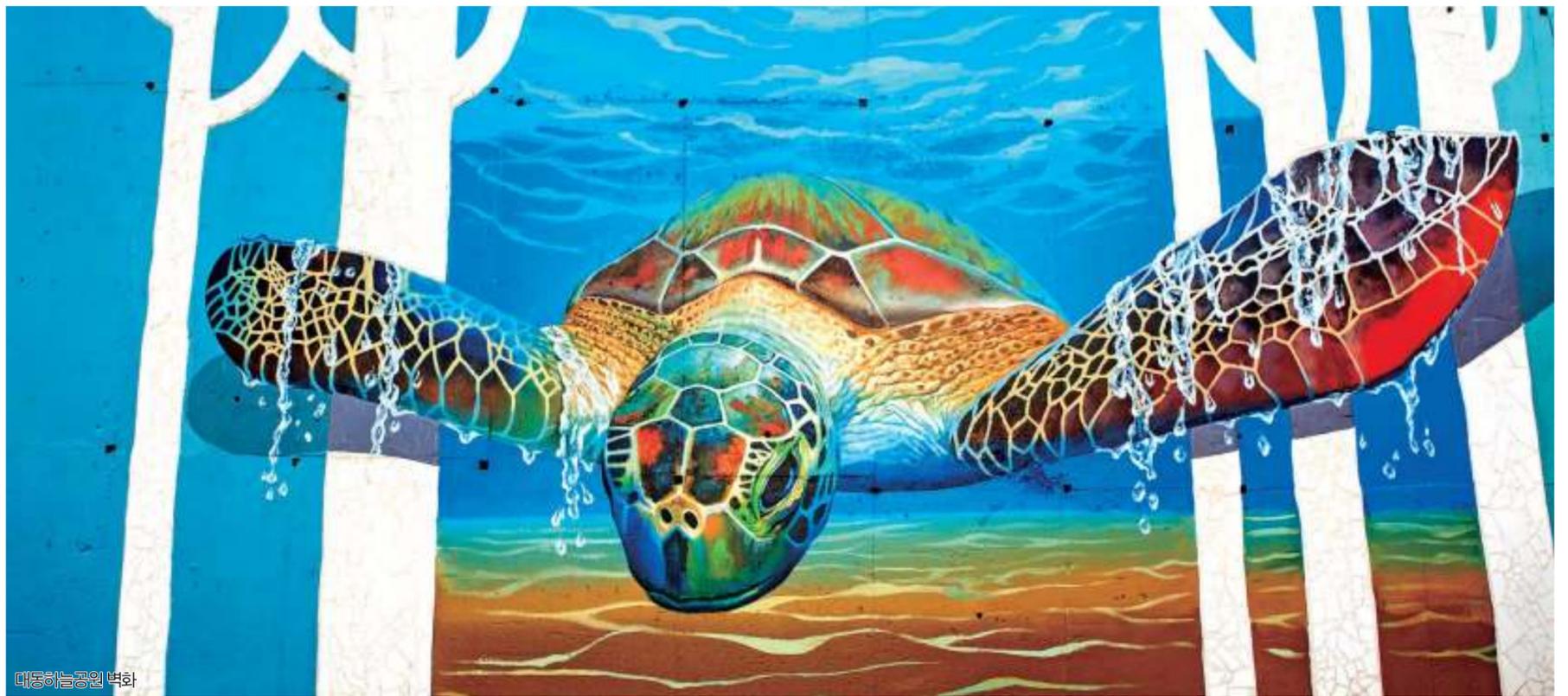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문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음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담벼락 알록달록 벽화에 반하고



대동하늘공원 벽화

달동네 내려앉는 노을에 물들고

올 댓 트립 나만 알고 싶은 토박이 추천 명소

하늘은 푸르르고, 산과 들판은 울긋불긋 저마다 가을색을 띤다. 선선한 바람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날씨가 반겨주는 만큼 전국 어디든 가도 인파로 북적인다. 덜 알려진 여행지를 찾아보자. 지역마다 토박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찾으면, 비교적 한산하게 여행지를 즐길 수 있다.

◇풍차가 빛나는 언덕 위 벽화마을 = 대전 지역에서 멀지 않은 대동하늘공원은 낮에는 알록달록한 벽화를 구경하고, 밤에는 반짝이는 풍차와 대전 시내 야경에 빠지는 감성 충만한 여행지다. 대전 시민도 알음알음 찾아올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요즘 일몰과 야경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대동하늘공원이 자리한 동구 대동에는 한

조용히 쉬었다 가기 좋다. 언덕 가장자리에 있는 풍차는 대동하늘공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원래 목재로 지었지만, 외관에 타일을 붙이고 야간 조명을 강화했다. 밤하늘 아래 찬란히 불을 밝힌 풍차는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토존이다.

대동하늘공원이 자리한 언덕은 해발고도 약 127m에 이르지만, 작은 건물이 오밀조밀한 도시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보문산과 계룡산 등 산자락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 더욱 신비로운 느낌이다.

해가 질 무렵이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일몰을 기다린다. 이곳에서 처음 맞는 일몰과 야경은 숨은 보물이라도 찾은 듯 벅찬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붉은 태양이 쌍둥이처럼 생긴 한국철도공사 빌딩 사이로 사라져갈 때면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온다. 이곳 야경은 소박하고 은은한 멋이 배어났다.

연인과 여행한다면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준비해보자. 풍차 옆에 자물쇠를 걸어두는 거처대가 있다. 풍차가 있는 반대쪽 오솔길을 따라가면 대동하늘공원의 또 다른 명소 연애바위(혹은 사랑바위)에 닿는다. 바위 사이가 움푹 파여, 연인들이 이곳에 숨어 사랑을 속삭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버림받은 것들의 유쾌한 반란 = 충북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는 국내 1호 정크아트리스트 오대호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작가가 20여 년 동안 제작한 작품 6000여 점 가운데 1300여 점을 전시한다. 1950년대 미국 화가 로버트 라우션버그의 '컴비인 페인팅'에서 시작된 정크아트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정크(junk)'와 '예술(art)'을 합친 말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품을 활용해 만드는 미술을 가리킨다.

지난 5월 개관한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는 폐교된 능암초등학교를 2013년부터 지켜온 충주어머니상상학교의 배턴을 이어받았다. 양성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담도담(옛 능암초) 관광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다.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가 구원 등판하면서 충주시 북쪽 끝에 자리한 양성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나라 온천 가운데 원수(原水)의 탄산 비율이 가장 높은 양성온천과

잡한우미 등 양성의 숨겨진 관광지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것.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가 선정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는 능암초등학교의 새 주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흉물스럽던 교사(校舍)는 동화에서 튀어나온 건물처럼 알록달록 옷을 입었고, 잡초가 무성하던 운동장은 멋진 정크아트 작품으로 가득하다. 정크아트와 폐교, 쓸모가 다해 버려진 것들의 유쾌한 반란이다.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 관람은 대표소가 있는 카페 미야우에서 시작한다. 병풍처럼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 왼쪽 끝이다. 파스텔 톤으로 차분하게 마감한 인테리어와 가을빛을 담은 은은한 조명이 매력적인 이곳에서 아이들은 에코봇을 만들고, 부모는 커피 한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

폐교 활용 '정크아트' 찰떡궁합
양성온천에서 지친 몸도 힐링
충주 대표음식 썩 요리도 일품

잔 마시며 여유를 누린다.

재생 골판지로 제작한 에코봇은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를 대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도안에서 떨어진 각 부위를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오대호 작가가 추구하는 감성적 정크아트를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다. 정크아트 작품에 색칠하는 아트 컬러링도 특별한 체험이다.

카페 옆으로 긴 복도를 따라 모션 갤러리와 키즈 갤러리가 이어진다. 모션 갤러리는 이름처럼 간단한 조각으로 작품을 움직여보는 공간이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폐품을 이용한 작품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오대호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도 자주 눈에 띈다. 오토바이 연료통으로 사람 얼굴을 표현한 작품과 라디에이터의 겹친 선을 이용해 인체를 형상화한 작품은 오 작가의 독보적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대동하늘공원 풍차



오대호아트팩토리

에코봇 체험 프로그램



운동장을 활용해 꾸민 실외 전시장에는 족히 3m는 되는 로봇부터 페타이어로 만든 루돌프, 영화 속 히어로 스파이더맨까지 다 있다. 녹슨 자동차 휠은 멋진 무사로 변신했고, 구부러진 쇠 파이프는 문어를 닮은 외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람개비가 달린 세발자전거는 안전한 편이다. 뒷바퀴 축을 옮겨 바퀴가 돌 때마다 말 타는 것처럼 덜컹거리며 앞으로 가는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스포츠 카처럼 완전히 드러누워야 발이 간신히 페달에 닿는 자전거도 있다.

기린 모양 미끄럼틀과 개미 모양 흔들의자, '흥부와 놀부' '해님달님' 같은 전래 동화 속 장면을 정크아트로 재현한 디오라마도 흥미로운 볼거리다. 실외 전시장 한쪽에 나란히 자리한 원두막도 매력적이다.

◇충주 왔으면 충주호도 '가고' 썩도 '먹어야 썩' = 충주호를 좀 더 가깝게 만나려면 중댐이길과 충주댐물문화관은 꼭 찾아야 한다. 곳곳에 마련된 쉼터와 정자, 조망대에서 충주호 풍경을 즐기며 최대한 천천히 걸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3개 코스로 구성된 중댐이길 가운데 마즈막재주차장에서 출발해 심향산둘레길을 따라 원점으로 돌아오는 2코스(8.3km)가 인기다. 심향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충주호도 아름답다.

충주댐물문화관은 충주다목적댐의 역사와 댐의 작동 원리를 알리기 위해 조성했다. 대형 스크린을 갖춘 홍보관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와 3시에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물에 관련된 동시와 동요를 소개하는 코너도 흥미롭다. 충주댐물문화관을 돌아본 뒤에는 충주댐 위를 걸어도 좋다. 충주댐 보조여수로 건설 공사 때문에 전량 엘리베이터 이용은 불가하다.

썩 요리는 충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다. 썩 빠로 내국물에 썩고기를 데쳐 먹는 사부사부, 육회, 탕수, 튀김, 불고기, 만두를 모두 맛보는 코스 요리가 일반적이다. 썩 한 마리로 이처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요리마다 다른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슴살로 조리하는 사부사부나 육회와 달리 불고기에는 다리를, 튀김에는 다리와 날개를 사용한다. 탕수와 만두는 나머지 부위를 다져서 만든다. 썩고기는 누린내가 없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김소희 기자 k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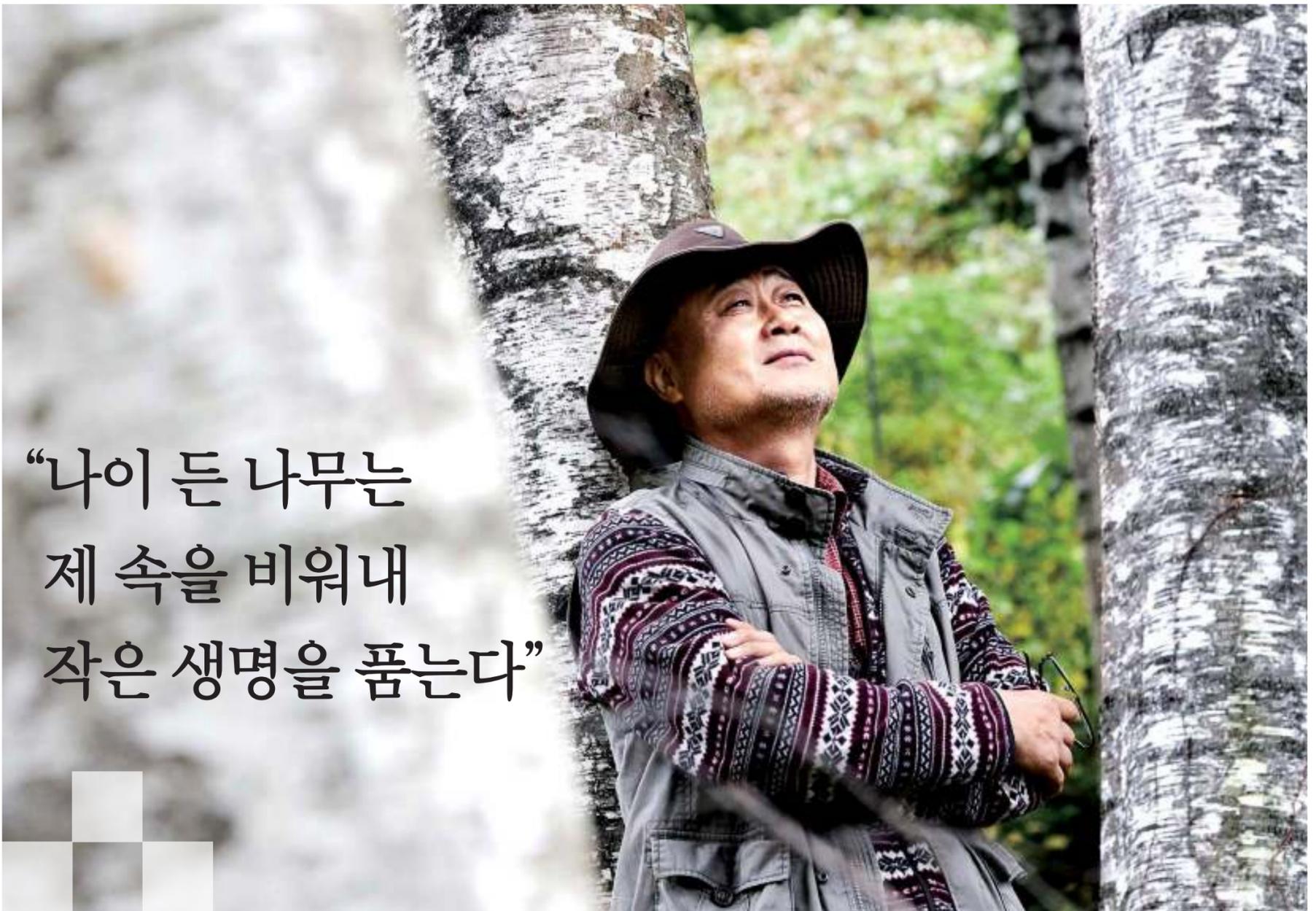
대전 '대동하늘공원'

공공미술 통해 대표 벽화마을로 대전시민도 잘 모르는 야경 명소 소박하고 은은한 멋 신비감 더해

국전쟁 때 피란민이 모여 살던 달동네가 있다. 비탈진 마을의 좁은 골목을 따라 오래된 집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 어렵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달동네 하면 웬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지만, 이곳은 동네 담벼락에 그려진 예쁜 벽화 덕분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마저 환해진다.

2007년 공공 미술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부터 달동네 풍경이 달라졌다. 지역 미술인과 동네 주민이 함께 벽화 작업을 하고 마을을 꾸미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르렀다. 대전의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자리매김했다. 구석 구석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자.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소란스럽게 관람하거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은 피한다.

벽화를 둘러본 뒤에는 대동하늘공원에 올라가자. 대동에서 가장 높은 언덕마루에 있는 공원으로, 이름처럼 하늘 아래 펼쳐진 작은 언덕이다. 벤치와 정자, 나무 그늘이 있어



“나이 든 나무는 제 속을 비워내 작은 생명을 품는다”

나무의사를 천직으로 삼아 온 우종영은 살면서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곤 했다. 그는 최근 '포레스트 위스퍼러(숲에서 속삭이는 사람)'라는 새 명함을 만들어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나무의사 우종영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년은 석약 판정으로 꿈을 저버리고 만다. 절망으로 보낸 질풍노도의 시기, 그를 붙잡아준 건 한 그루의 나무였다. 어떤 악조건에도 가지를 뻗어가는 나무가 보여준 단단한 삶의 태도. 그렇게 얻은 인생의 가르침을 보은으로 여기며 우종영(禹鍾榮·64)은 아픈 나무들을 위해 나무의사가 됐다. 어느덧 인생 후반, 나이가 들수록 제 속을 비우고 작은 생명들을 품는 고목을 보며 그는 다짐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나무의사 우종영은 그동안 나무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자 에세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펴냈다. 20년 전 출간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와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중년 이후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며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 말을 번역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다.’ 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든 우리에게 말을 걸고 표정을 짓는데, 그건 저마다의 경험에 비춰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연륜이 쌓인 만큼 자연이나 사회를 대하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졌어요. 나무를 바라볼 때도 단순히 특성보다는 그 품성을 이해하려 하고요.” 그는 누군가를 만날 때면 줄곧 그이와 닮은 나무를 떠올리곤 한다. 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성향을 두고 비슷한 나무를 찾았다면, 이제는 사람과 나무가 지닌 사연과 태도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닮고 싶은 나무’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단다.

“한때는 소나무를 닮아야지, 대나무를 닮아야지 그랬다면, 이제는 꼭 어떤 나무를 정하지 않아요. 가령 산에 가면 바위틈에 자라는 작은 팔배나무를 볼 수 있는데,

높이 자랄수록 뿌리와 멀어져 더불어 살아가려 성장 멈추는 ‘나무의 자세’ 우리가 배울 점 덜 벌고 덜 쓰며 행복 찾아야 나무 아래 유골함 묻는 수목장 긴 세월 버티는 식물들에 가혹 뿌리가 다치면 오래 못 살아 ‘나무 심기’ 웰다잉 방법 추천

이 나무가 산 아래 계곡에서 뿌리를 내리면 어마어마한 거목이 돼요. 그러니 산에 있던 팔배나무는 자신이 뿌리내린 곳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억제한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우연히 만난 팔배나무에게서 인내와 강인함을 발견하듯, 요즘은 그때그때 마주치는 나무들의 품성을 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높아질수록 뿌리와는 멀어진다

척박한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쭉쭉 자라던 나무들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욕심을 내면 더 클 수 있다는 걸

나무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계속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는 가까워져도 뿌리와는 멀어져 결국 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그는 나무가 멈춤의 시기를 갖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숲 사진을 보면 나무들의 키가 거의 일정합니다. 너비나 모양은 달라도 혼자 도드라지게 높이 솟은 나무는 찾기 힘들죠. 그건 숲에 사는 나무간의 약속이예요. 한 나무가 자라면 또 다른 나무도 더 자라려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인간 사회는 공존은 희박하고 경쟁이 난무하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기 위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나무의 자세는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해요.”

이러한 나무의 성장과 멈춤은 ‘우듬지’가 조절한다. 우듬지란 나무 맨 꼭대기의 줄기인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게 하는 동시에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뻗는 것을 통제한다. 인간으로 따지면, 우듬지는 곧 삶의 구심점이자 목표, 방향 등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우듬지는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소멸한다. 그는 자신 역시 우듬지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그것이 순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젊을수록 우듬지는 왕성하죠. 일종의 주대이기도 하고, 때론 희망이나 꿈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나무가 우듬지를 소멸시키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해요. 과거와 똑같이 경쟁하고, 벌고, 쓴다는 건 무리입니다. 덜 경쟁하고, 덜 벌고, 덜 쓰면서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죠. 나무는 자신에게 필요한 햇빛을 쬐 만큼의 하늘만 확보되면 더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자기만의 하늘을 가진 거라고 봐요. 그땐 우듬지가 사라져도 길을 잃거나 방향

하지 않죠.”

그는 나이가 들수록 우듬지보다는 ‘틈’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이란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존재합니다. 어른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찬 숲에 틈이 없다면 키 작은 어린 나무들은 햇빛을 쬐 수 없잖아요. 그보다 더 아래에서 사는 풀이나 꽃, 곤충 등은 더 심할 테고요. 숲에 틈이 있어야 빛이 들고, 새로운 희망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큰 나무는 그런 틈을 내어줍니다. 동시에 어린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죠. 우리네 인생에서도 이런 큰 나무 같은 어른이 많아져야 합니다.”

수목장의 불편한 진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변을 보듬고 살다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 말미 또한 그러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삶의 기트머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수목장과 관련해 한마디했다. 최근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행위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대개 나무 아래 유골함을 묻는 방식인데, 그러면 뿌리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상한 나무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게도 고인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수목장이 발달한 스웨덴은 ‘회상의 숲’을 만들어 운영해요. 우리나라 수목장처럼 특정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게 아니라, 지정된 숲에 뿌리는 식이죠. 산골(散骨) 장소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숲에 들어가거나 꽃, 나무를 심는 것도 금지합니다. 유족이 그 장소나 식물을 망자의 흔적이라 여겨 집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지요. 또 나무 앞에서 추모하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 숲 둘레길 등을 걸으며 고인을 회상합니다.

그게 숲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고인을 편안히 모시는 길이라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와 더불어 어떻게 죽느냐까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 그는 웰다잉의 한 방법으로 ‘나무 심기’를 제안했다. 물론 나무의사로서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나무를 심고 10년만 지나면 그 그늘 안에서 책을 읽고 쉴 수 있습니다. 여유 땅이 있다면 나무를 심어보길 권해요. 이때 내가 좋아하는 나무보다는 그 땅을 좋아하는 나무, 내가 심고 싶은 곳보다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위치를 골라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죠. 우리 세대의 손으로 키운 나무들이 먼 훗날 후손들에게도 위안과 지혜를 준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지혜 기자 jyelee@



서울중앙지법 여성관계법연구회 이끄는 문혜정 부장판사

“여성법관 멘토-멘티制 자리잡게 할 것”

선후배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고민·감정 공유, 해결책까지
김영민 교수·문유석 판사 등
초청강연 프로그램도 기획



(24기)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았다.

“여성 법관들에게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78명의 여성 판사가 모인 여성관계법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3월 회장으로 추대된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여성 법관들이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 황기선(25기) 부장판사와 ‘부부 판사’로도 유명하다.

여성관계법연구회는 1998년 전효숙(7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던 시절 만든 학회다. 현재 전국 여성 법관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의 전신이다. 노정희(19기) 대법관이 여성관계법연구회장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이수영

여성관계법연구회는 문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여성으로서 올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우러오(23기) 수석 부장판사가 배출되면서 ‘판언니’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소통을 중시하는 우수석 부장판사의 영향으로 학회는 물론이고 여성 법관들의 모임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달 29일에는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인 서울중앙지법 문유석 부장판사를 초청해 ‘대중문화 콘텐츠와 젠더 이슈’에 대해 강의

를 듣는다. 앞서 6월에는 김영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는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9월에는 ‘퍼스널 칼라 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수많은 당사자와 재판관계를 만나는데,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찾아감으로써 조금 더 밝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선후배 법관들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제도도 조직을 재정비에 올해부터 다시 운영한다. 전체 10개조로, 1개 조당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7~8명씩 편성됐다. 문 부장판사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여성 법관들만의 고민과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여성 법관 비중이 30%를 넘었다. 하지만 아직 평판사(경력 15년 이하) 이후 여성 법관들의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문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여성 법관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손정의의 자성 “위워크 과실 눈 감았다”

소프트뱅크 14년만에 첫 적자... “너털너털” 참담한 심정 토로

“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을 못 본 체했다. 특히 위워크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유감을 표한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미국 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 ‘위워크(WeWork)’에서 발생한 지배구조의 과실을 외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자신이 ‘눈 뜬 장님’처럼 위워크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날 손 회장은 암울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2분기(7~9월) 7044억 엔(약 7조49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14년 만이다. 특히 핵심 사업인 비전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뼈아팠다. 9월 말 시점에 비전

펀드가 투자한 88개 기업 중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테크놀로지(우버)와 위워크 등 25개 기업의 가치가 감소했다.

손 회장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너털너털’, ‘사뭇건 엄청난 적자’, ‘대풍’, ‘폭풍우’ 등 선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전략과 비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위워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5년 뒤에는 위워크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낼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V자 모양의 선명한 회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워크의 몰락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손 회장에게는 드문 실수였다. 위워크는 올해 초만 해도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6일 실적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달러(약 54조 원)로 평가를 받은 대표적 인 유니콘 기업이었다.

그러나 상장 서류 제출 뒤 상황이 급변했다. 기업 지배구조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상장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사이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했고, 결국 상장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변효선 기자 hsbyun@

현대차그룹, 장애인 150명에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

작년 143명 이어...대여사업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보급·셰어링 사업을 2년째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차그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40명을 포함해 아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50명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동화키트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동화키트는 차와 비행기에 적재할 수 있는 수동휠체어의 장점과 장애인의 체력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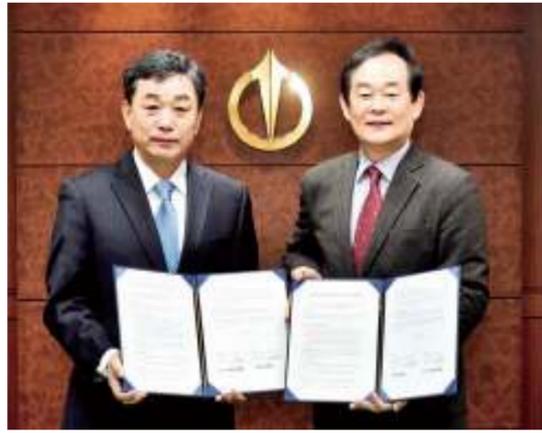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전달식’에서 장애인단체총연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담이 달한 전동휠체어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최근 다양한 전동휠체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가격대가 최대 700만 원에 이르고 정부의 장애인 지원 품목에서도 제외된 탓에 장애인이 자비로 구매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장애인 143명에게 핸들형 및 조이스틱형 등 총 2종의 모델을 지원했고, 올해는 바퀴 일체형을 더해 총

3종의 모델을 1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여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동화키트를 단기 대여하는 셰어링 사업 ‘휠셰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월평균 70명이 전동화키트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올해 9월까지 누적 750명이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투데이·강원일보

기사교류 협약 체결

이투데이와 강원일보는 7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일보사회실에서 ‘기사 교류 및 사업 협약’을 맺었다. 김상철(왼쪽)이투데이 대표이사 와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강원일보 박승선 기자

차붐 넘은 쏘니

UEFA 챔피언스리그서 멀티골
122·123호...유럽무대 최다골

손흥민(27·토트넘 홉스퍼)이 마침내 ‘한국 축구의 전설’ 차붐근전 국가대표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UEFA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과 함께 유럽무대 진출 후 개인통산 122호, 123호 골을 연거푸 터뜨리며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다. 만 18세인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1군에 합류한 손흥민은 데뷔 후 함부르크 소속으로 3개 시즌 동안 20골을 넣었고, 2013-2014시즌부터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긴 후 2개 시즌 동안



손흥민이 6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미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를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베오그라드(세르비아)/AP뉴시스

29골을 넣었다. 2015-2016시즌 현 소속팀인 토트넘으로 팀을 옮겨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한 손흥민은 이날까지 총 74골을 기록하며 유럽무대에서 서만 개인통산 123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2승 1무 1패(승점7)로, 4승(승점12)을 거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이재명 기자 lly0403@

NH벤처투자 강성빈 초대 CEO 내정

NH농협금융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NH벤처투자 신임 대표이사에 강성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상무(CIO)가 7일 내정됐다.

강 신임 대표는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CIO로 재직 중인 벤처투자분야 전문가다. 부산 동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장기신용은행을 시작으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에이티탑인베스트먼트와 이에스인베스터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종 선임은 올해 연말에 열리는 NH벤처투자 발기인 총회에서 이뤄지며 회사 설립과 동시에 2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기움 해외주식 홍보대사 이항영 교수

기움증권은 7일 국내 대표적인 미국주식 투자 정보제공업체 유에스스타크의 대표 운영자 이항영 교수를 해외주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에스스타크는 ‘미국주식이 답이다’의 공동저자 장우석 본부장과 이항영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기움증권 해외주식 홍보대사로 활동할 이항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대우증권 투자정보부장을 거쳐 현재 머니투데이방송 전문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국무조정·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정보 △정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직무대리 김달원 △규제총괄과장 유희중 △규제심사총괄과장 옥선경 △사회규제심사1과

장 전창현 △공직복귀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박호건 △법무감사담당관 정일환 △중기벤처정책과장 최태웅 △여성가족정책과장 이한형 △안전정책과장 이병우 △정년소통팀장 홍재승 △연료소통행정관 손선미 △행사의전행정관 김성규

부음

▲조중호 씨 별세, 정일형(경기일보 편집국장) 씨 장인상 = 6일,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31-640-9797
▲이병선 씨 별세, 이성규(사업)·준규(하나은행 개포동지점장) 씨 부친상, 임무

혁(전 강릉MBC 사장) 씨 장인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72
▲이동녕(영강디앤씨대표) 씨 별세, 이덕형·지은(삼성전자)·기형(대구시청) 씨 부친상, 이정운(삼성전자) 씨 장인상,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씨 형님상 = 6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9일 오전 5시, 053-258-4444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래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따지는 역할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고 더 걸어서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복지 확대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181.6조 원이 책정되었다.

로 더 많은 혜택을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성장과 복지에 앞으로 몇 년간 재정을 더 많이 쏟아 붓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마음이 영 편치 못하다.

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 걸지 않고 더 많이 쓰는 비결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길이다.

다면서, 외환위기 수준으로 적자를 늘려가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경제부양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성아영의 발명 이야기

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칼대학 교수

발명하면 으레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고유명사가 있다. '발명왕 에디슨'. 어찌 보면 이제는 보통명사화되었는지 모르겠다.

1%의 영감, 또 하나의 1% 기본요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이 반영된 것이어야 하고 창작적인 것이어야 한다.

곤 했다. 오늘날에는 더 복잡해졌다. 그건 융·복합성 때문이다. 고전적인 과학의 경계가 무너지며 융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아이디어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식 구조를 통해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작용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밀턴 명언 "어떤 자유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양심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진짜 이대로 혼령이 시행되는 것이냐."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혼령)'을 제정한 이후 검사들에게 일종의 인사말과 같이 듣는 말이다.

기자수첩



김보름 사회경제부/fullmoon@

반짝하고 그칠 혼령보다 중요한 것

짝'할 뿐 폐쇄적인 취재 환경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정보가 오고갈 공산이 크다.

지난 지금,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린다.

린다.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자율성을 뺏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 시사상식/리셋증후군(reset syndrome)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만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논설실, 자문위원, 산업부, 정치경제부, 자문위원, 중기IT부, 사회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국제경제부, 부동산부, 뉴스랩부.

이슈&인물

환경교육 전문 소셜벤처

이미영 에코플레이 대표

“미세먼지 진단, 고발 아닌 공유 의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날인데, 아이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자”며 부모를 조른다. 엄마, 아빠는 “이런 날 나가면 ‘아아’ 해요(아파요)”라며 타이르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설명하는 것처럼 막막한 일도 없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에코플레이’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만난 이미영 대표는 “아이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면서 “아이가 포도송이 모양으로 보이는 폐포 속에 초미세먼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3D로 보더니 실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에코플레이는 환경교육 전문 소셜벤처 기업이다. 2018년 미세먼지 증강현실 오프라인 체험존을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지자체, 과학축제, 안전축제 등에서 즐겨 찾는다. 단순히 ‘미세먼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말로 끝나면, 공포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직접 증강현실을 통해 나무에 색칠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결과다. 자연보호하는 교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내놓는 에코플레이의 ‘야심작’은 미세먼지 진단 공유 플랫폼 ‘에코캐스트’다.

“미세먼지 측정 앱은 많지만, 공기질이 나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한 것 같아요. 환기하지 않으니 이산화탄소(CO₂)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그리고 방사능 물질까지도 쌓이는 거잖아요.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몇 분 외출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이 대표도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의 도움으로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특허 출원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스타트업에 도전한 이 대표의 꿈은 다부지다. 그는 “지금도 미비해도 50대엔 환경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도 아이가 눈에 밝혀 복직할 수 없었던 그에게 지금의 일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하다. 함께 에코플레이를 꾸려 나가는 3명의 엄마에게도 항상 “일을 놓지 말자”고 말하곤 한다.

에코플레이는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일자리 양성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육, 환경, 과학에 종사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을 훈련시켜 환경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파견할 계획이다.

“저도 82년생 김지영 세대예요. 저는 83년생 이미영입니다. 대기업 출신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돌봄이나 교육 쪽으로 진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해요. 저희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환경’으로 진로를 정한 만큼 꾸준히 해나갈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꿈이 있으니까요.”



이미영 에코플레이 대표는 미세먼지 진단 공유 플랫폼 ‘에코캐스트’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이 간 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네거티브 방향이 아닌 소소한 제보와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출신

미세먼지 데이터 실생활 적용

환경 안전 네트워크 구축 목표

50대엔 환경분야 1인자 될 것

나도 ‘82년생 김지영’ 세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함께 일하는 세 명의 엄마에게

“일 놓지 말자” 항상 얘기해

울과 봄에 주로 나옵니다. 미세먼지는 안전 영역과 직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 사업을 하는 것도 요구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인천 수도 사건처럼 갑작스럽게 큰 이슈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준비해 두면 나중에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

“직장도 밟고, 야근도 잦다 보니 돌을 막 지난 아이를 두고 나가는 게 어려웠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

같아요. 2015년부터 3년간 방과 후 과학교재를 쓰는 등 짧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던 거 같아요. 연구직이나 토목 설계 같은 분야는 남성이 많으니 여성이 배려받기 힘들어요. 이공계는 짧은 근무를 선호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교육은 여성이 많아서 진입하기 수월했어요. 결국 에코플레이가 증강현실과 관련된 사업까지 가게 됐지만요.”

- 사회 경험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도움을 줬을 것 같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등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죠. 저는 제 분야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사 출신인데,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니 아예 놓게 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따지만, 전문 영역으로 돌아갈 순 없었죠. 부모 세대를 통해 봤고, 학습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일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력 단절이 오래 되면, 아이 돌봄 쪽으로 일자리가 한정되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스타트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판이 큰, 잘 짜인 곳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생태계 속에 놓인 기분이에요. 그래도 오래가고 싶어요.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놓지 않았고, 놓지 않을 겁니다.”

김소희 기자 ksh@

사설

경제법안 처리 절박한 호소, 국회는 외면말아야

경제계가 다급한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가지를 꼽았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에 족쇄를 채워 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여야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반발로 주요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갈수록 기업경영의 숨통이 조여들게 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선 입법 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강제 시행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45%가 현재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구조이고, 66%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실정(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이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유예,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도 시급하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탓에 미래산업 발전이 막혀 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안 역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 등을 안기고 있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경제계는 강조한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이면 끝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가장 큰 일인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까지 겹쳐 여야는 극한 대립 상태다. 국회 파행의 불씨다.

게다가 여야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경제살리기 법안을 뒷전이다.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또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산업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만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 부진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정부가 나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론스타 먹튀 사건 소재로 한 ‘블랙머니’

영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뒤늦게 영화로 대학원 진학을 할 즈음 들었던 의문이다. 이후 이른바 사회파 영화들을 밤새워 보기 시작했지만 그 답은 지금도 모호하다.

그레도 상업영화, 주류영화의 홍수 속에 곳곳이 현실의 아픔과 상처를 혹은 잊힌 역사의 한 장면을 당대에 끌어내어 당당히 스크린에 올려내는 정지영 감독을 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부조리를 조금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정 감독은 아마도 한국영화관의 최고령 현역일 것이다(올해로 73세). ‘남영동1985’ ‘부러진 화살’ 등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일관된 작가주의 감독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다.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범죄 실화를 소재로 하여 영화 ‘블랙머니’를 선보였다.

서울지검 검사 양민혁(조진웅)은 일명 ‘막프로’로 불릴 정도로 좋은 말로 혈기방장, 아니면 툭아이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조사를 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되고, 그 사연을 파헤쳐보니 뭔가 엄청난 내막이 숨겨져

있다. 자산가치 70조 원의 시중은행이 금융위기를 틈타 혈값 1조7000억 원에 외국투자회사로 넘어간다.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이다. 냄새가 너무 난다. 자살로 위장된 피의자가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밝혀지면서 양 검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거대금융사기단과 맞닥뜨린다.

오직 직진만을 외치는 조진웅의 물오른 연기와 이제 대세 배우가 되어 슈퍼 엘리트 변호사 역을 맡은 이하늬가 은근한 합을 이룬다.

실제 외환은행 혈값 매각 사건의 주범인 론스타의 먹튀사건을 소재로 하여 만들었지만 복잡한 금융지식 따윈 필요 없다. 노련한 감독은 역시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정도로 아직 젊다.

사건을 파면 팔수록 재미있었다는 감독의 열정이 잊힐 뻔한 황당무계한 금융사기극을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정당한 분노를 요구한다. 인성적인 연기를 펼친 조진웅 검사 같은 사람이 열명만 있었다면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검찰계가 어땠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 들게 한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에코플레이 직원이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증강현실 속 화면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색칠한 나무가 심기고, 미세먼지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사라진다. 사진제공 에코플레이

- 에코캐스트는 공기 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시민들이 자신이 간 곳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이다. 한편으론, 고발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희 애플리케이션 킬러 콘텐츠는 ‘진단’입니다.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겠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내 공기 질은 미세먼지 농도도 중요하지만, 영업장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리 잘하는 영업장은 저희 앱으로 인증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단순히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소소한 제보와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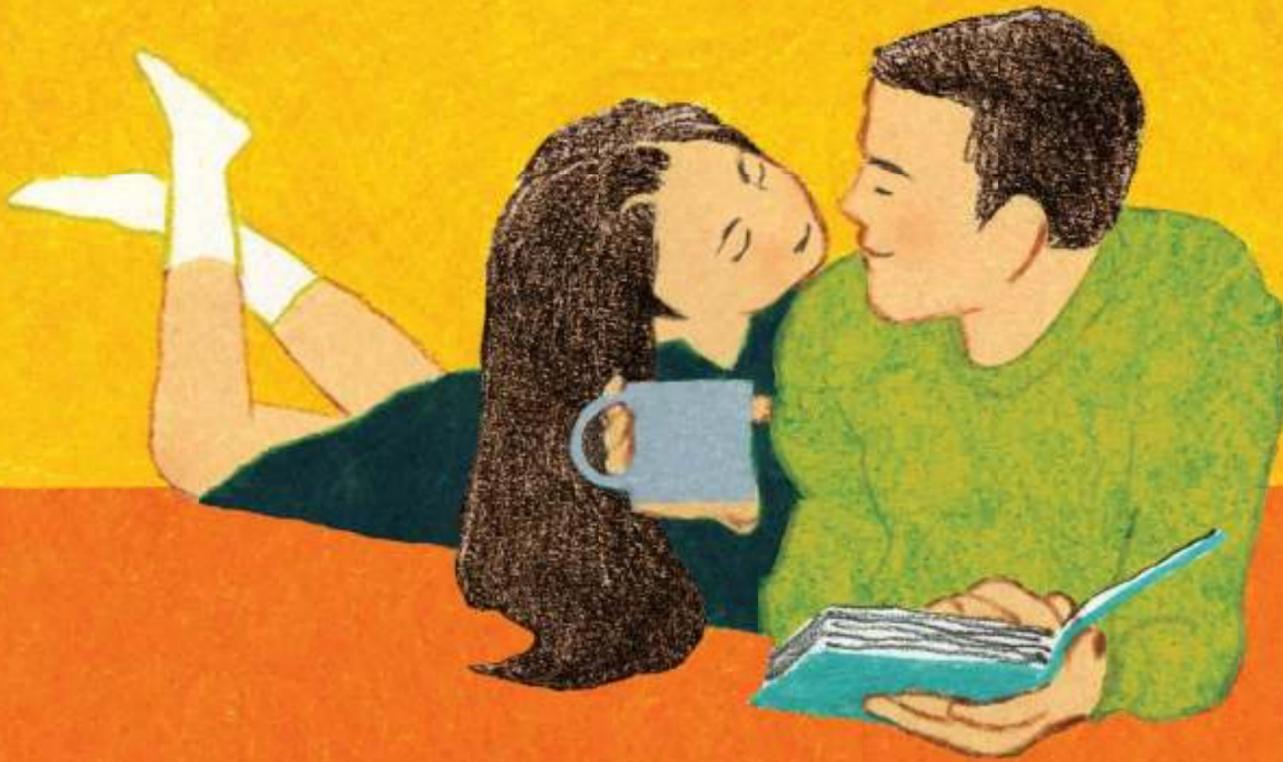
- 환경 안전 네트워킹 구축이 목표인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이슈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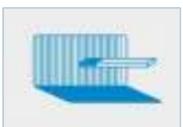
SAMSUNG

내 아내가 입을 옷이니까 내 남편이 마실 숨이니까

물과 먼지가 엉키지 않는
깨끗한 가전이어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먼지와 물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
삼성가전 안심설계의 핵심입니다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깨끗하게 직접 청소할 수 있는 **그랑데**

삼성건조기그랑데



삼성제트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따로
분리해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제트**